

# 폐지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

변금선 · 윤기연 · 송명호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18년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섰지만 수년간 노인빈곤 1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빈곤의 대표적인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집단이 폐지를 겪는 노인이다. 한파와 폭염이 시작되면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가는 폐지수집 노인의 사진이 보도되고, 많은 국민들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와 특성에 관한 실증적인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실태조사자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활용해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을 확인하여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관해 제언하였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유형 등)과 건강상태(우울, 자살생각, 주관적 건강상태 등), 공적 급여 수급 현황, 근로 특성 등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폐지수집 결정요인, 폐지수집으로 인한 불건강 등을 탐색적으로 확인했다. 본 연구는 그간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폐지수집 노인들의 특성을 폭넓게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폐지수집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과제는 원내 변금선 선임연구원이 수행하였으며 노인빈곤, 노인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해 학술적, 정책적으로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으로 본 연구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자문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 평택대학교 손병돈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배지영 교수, 검독을 맡아주신 서울사이버대학교 임세희 교수, 서울시복지재단 문혜진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남희 선임연구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 목 차

그림으로 보는 주요 결과 .....	i
요 약 .....	v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3
제1절 폐지수집 노인에 관한 실증 연구 .....	3
제2절 지자체 실태조사 현황 .....	4
제3절 주요 쟁점 .....	5
제3장 분석방법 .....	7
제1절 분석자료 .....	7
제2절 분석방법 .....	10
제4장 분석결과 .....	31
제1절 폐지수집 노인 규모 추정 .....	31
제2절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 변화 .....	51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 .....	51
2. 근로 특성 .....	20
3. 경제적 특성 .....	23
4. 공적급여 수급 현황 .....	32
제3절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 심층분석: 2017년 .....	62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62
2. 근로 특성 .....	28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현황 .....	53
4. 경제적 특성 .....	37
5. 공적급여 수급 현황 .....	04
6. 건강상태 및 안전 .....	24
7.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54
8. 삶의 만족도 .....	47
제4절 폐지수집 노인 심층분석 .....	45
1. 폐지수집 위험 요인 분석 .....	45
2. 폐지수집과 건강, 우울, 안전, 삶의 만족도 관계 .....	45
제5장 결 론 .....	59
제1절 결과 요약 .....	59
제2절 정책제언 .....	60
1.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	06
2.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방안 .....	16
제3절 한계 및 후속 과제 .....	16
참 고 문 헌 .....	65

# 표 목 차

<표 1-1> 연구 개요 .....	2
<표 2-1> 지자체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주요 결과 .....	4
<표 2-2> 폐지수집 노인의 정의 .....	5
<표 3-1> 노인실태조사 개요(2011년, 2017년) .....	8
<표 3-2> 폐지수집 노인의 정의 .....	10
<표 3-3> 분석변수 .....	11
<표 3-4> 심층분석 모형 개요 .....	12
<표 4-1-1> 전체 폐지수집 노인 규모 추정 .....	13
<표 4-1-2> 생계를 이유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규모 추정 .....	14
<표 4-2-1> 전체 폐지수집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 2011년, 2017년 .....	16
<표 4-2-2>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비중 변화: 2011, 2017년 .....	17
<표 4-2-3>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 2011년, 2017년 .....	19
<표 4-2-4> 일의 내용 변화: 2011년, 2014, 2017년 .....	19
<표 4-2-5> 종사상 지위의 변화: 2011년, 2017년 .....	20
<표 4-2-6> 현재 일자리 근로 특성 변화: 2011년, 2017년 .....	21
<표 4-2-7>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일자리 근로 특성 변화 : 2011년, 2017년 .....	21
<표 4-2-8> 일을 하는 이유 변화: 2011년, 2017년 .....	22
<표 4-2-9> 소득수준 및 주거유형 변화: 2011, 2017년 .....	22
<표 4-2-10>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소득수준 및 주거유형 변화: 2011년, 2017년 .....	22
<표 4-2-11>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변화: 2011년, 2017년 .....	24
<표 4-2-12>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 수급 현황 변화: 2011년, 2017년 .....	25
<표 4-3-1>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7년 .....	27
<표 4-3-2> 일의 내용 .....	28

<표 4-3-3> 현재 종사상 지위 .....	9	2
<표 4-3-4> 현재 일자리의 근로 특성 .....	0	3
<표 4-3-5> 현재 일자리의 월평균소득 분포 .....	0	3
<표 4-3-6> 현재 일자리의 일한 기간 .....	1	3
<표 4-3-7> 현재 일을 하는 이유 .....	2	3
<표 4-3-8> 현재 일 만족도 .....	3	3
<표 4-3-9> 현재 일 불만족 이유 .....	3	3
<표 4-3-10> 최장기 일자리 그만둔 이유(일 경험 없는 경우 제외) .....	4	3
<표 4-3-11> 향후 근로 희망 현황 .....	5	3
<표 4-3-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	5	3
<표 4-3-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유형 .....	6	3
<표 4-3-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유형 (참여 희망자 대상) .....	7	3
<표 4-3-15> 소득 및 주거유형 .....	8	3
<표 4-3-16> 가구소득 구성 및 구성비 .....	9	3
<표 4-3-18> 기초보장급여 수급 현황 .....	0	4
<표 4-3-17> 가구자산 및 부채 현황 .....	0	4
<표 4-3-19>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 현황 .....	1	4
<표 4-3-20> 주관적 건강상태 .....	2	4
<표 4-3-21> 만성질환 개수 .....	3	4
<표 4-3-22> 우울증 의심 여부 .....	3	4
<표 4-3-23> 만60세 이후 자살 생각 여부 .....	4	4
<표 4-3-24> 낙상 경험 .....	5	4
<표 4-3-25> 병원 및 의원 진료를 못 받은 경험 .....	6	4
<표 4-3-26> 삶의 만족도 점수 평균 .....	7	4
<표 4-3-27> 건강 만족도 .....	8	4
<표 4-3-28> 경제수준 만족도 .....	9	4
<표 4-3-29>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	0	5
<표 4-3-30>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1	5

<표 4-3-31> 사회 여가, 문화활동 만족도 .....	2.....	5
<표 4-3-32>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	3.....	5
<표 4-4-1> 폐지수집 위험 요인 분석(선형확률모형) .....	5.....	5
<표 4-4-2> 폐지수집과 건강, 우울의 관계(선형확률모형) .....	6.....	5
<표 4-4-3> 폐지수집과 낙상사고, 삶의 만족도의 관계 .....	8.....	5
<표 5-2-1>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가능 폐지수집 노인 규모 추정 .....	1.....	6
<표 5-3-1> ‘서울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와 ‘2017 노인실태조사’ 분석결과 <sup>2</sup> 비교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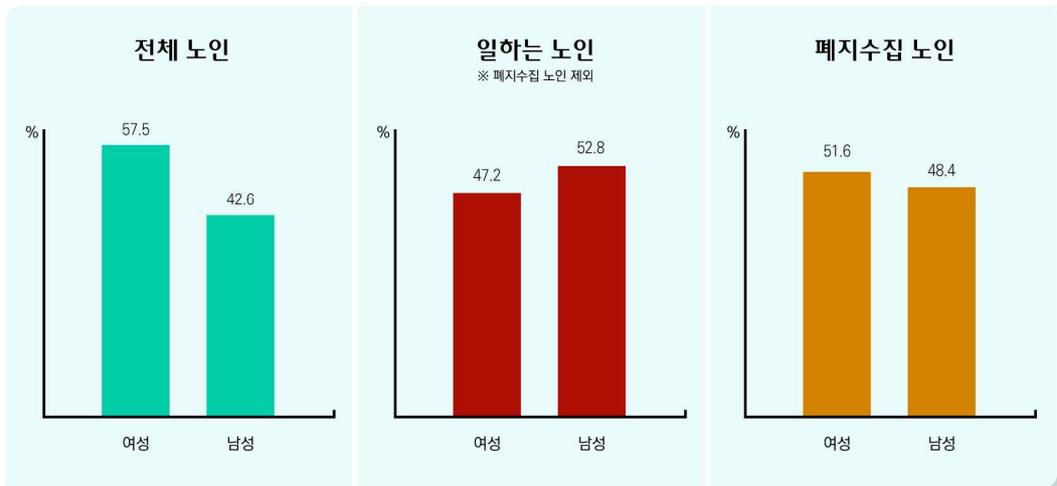


# 그림으로 보는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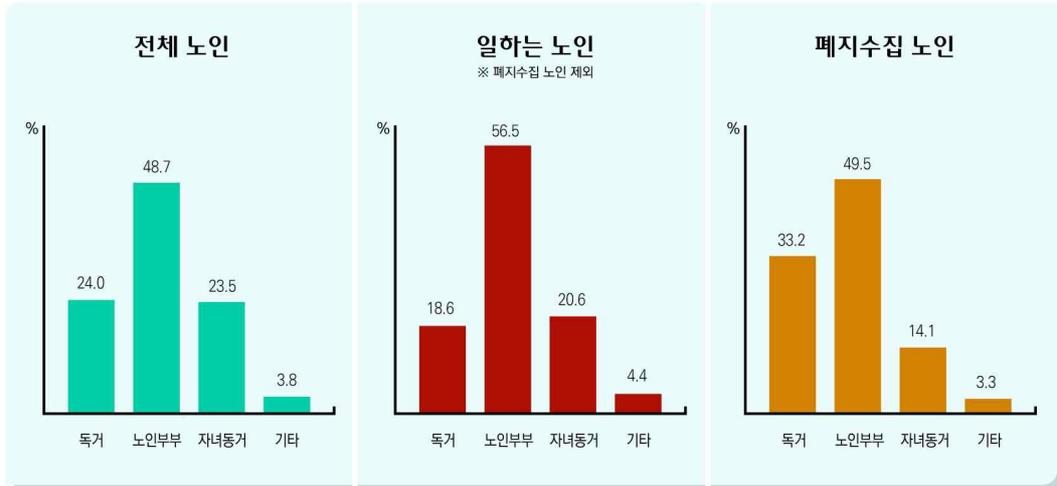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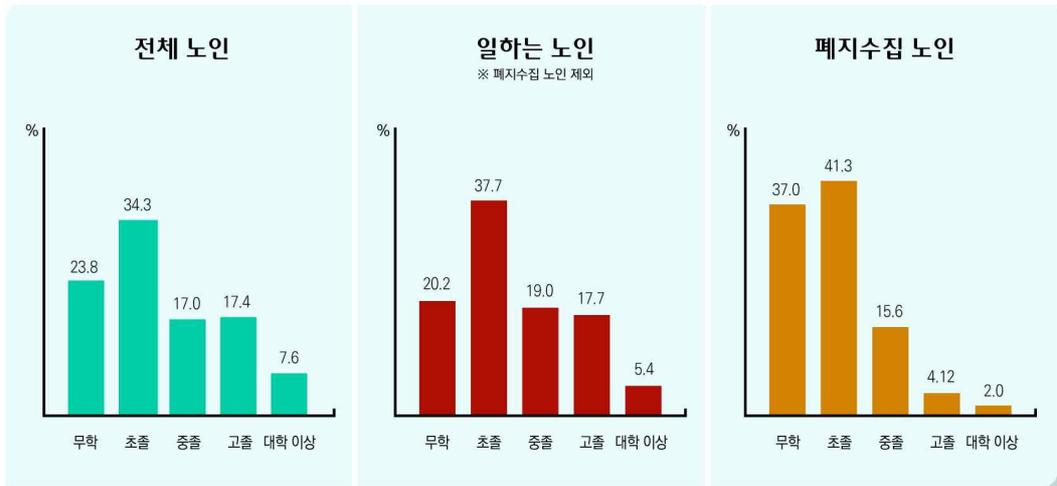
## 성별



## 가구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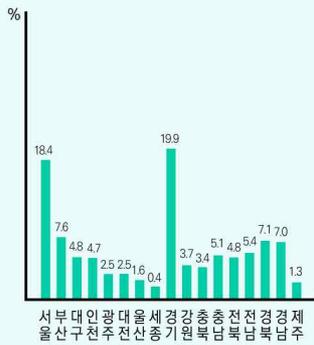


##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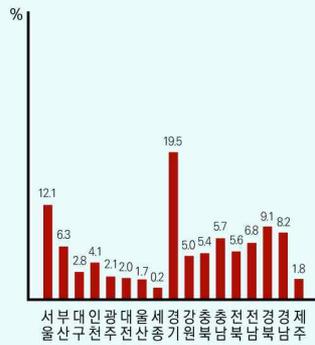
## 거주 지역

### 전체 노인



### 일하는 노인

※ 폐지수집 노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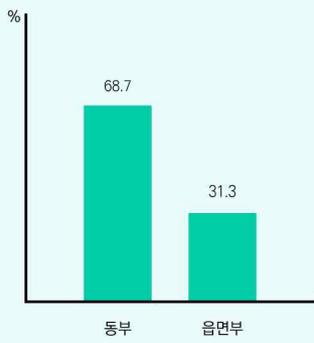


### 폐지수집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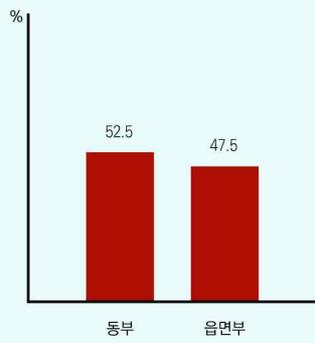
## 거주지 유형

### 전체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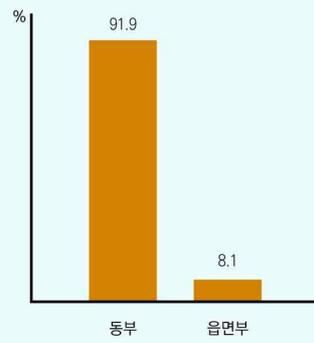


### 일하는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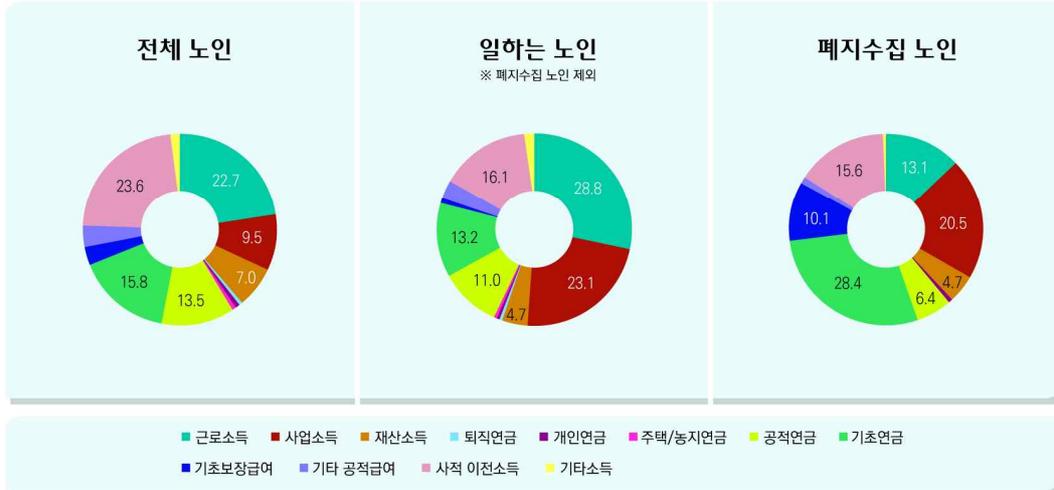
※ 폐지수집 노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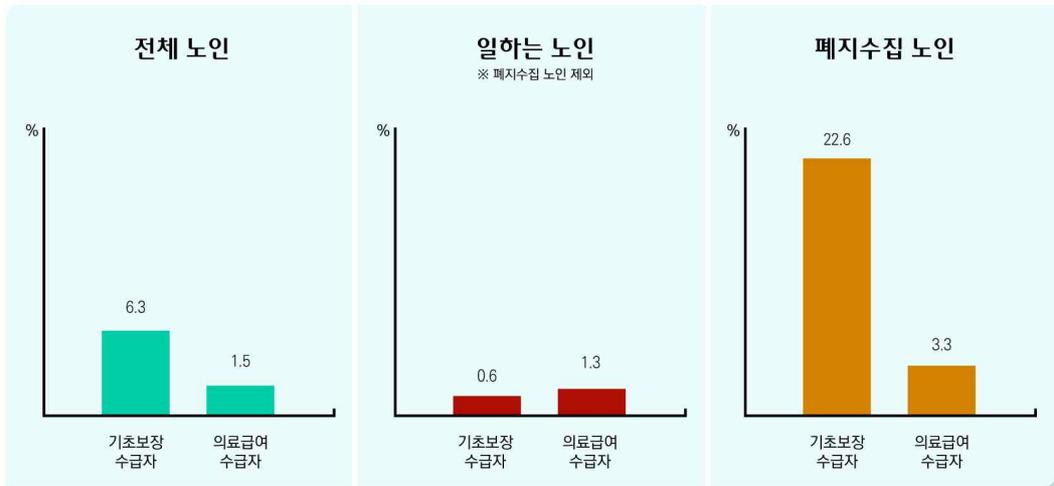
### 폐지수집 노인



## 가구소득 구성 및 구성비



## 기초보장급여 수급 현황



## 요 약

###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폐지수집 노인에 관한 기초연구로 2차 자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폐지수집 노인의 기본 현황을 확인함
- 폐지수집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여건, 경제수준, 복지수급 실태 등을 확인하여 폐지수집 노인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함

### □ 주요 결과

- 폐지수집 노인 규모를 추정된 결과, 2017년 기준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기준 약 6만6천명으로 추정됨
  - \* 폐지 판매처인 고물상 관련 공식 통계: 2006년 환경부 고물상수 7,282개, 고물상 관련 단체 7만 여개로 추정. 2004년 국세청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현황은 전국에서 15,800명이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으로 발표함. 2017년 서울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동사무소 직원이 고물상 방문조사)에서 폐지수집 노인은 서울시 노인인구의 0.2%였음(강남구 제외)
-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폐지수집 노인은 전체 노인보다 고령 노인이 많고 여성 비중은 낮음. 교육수준은 저학력자, 가구유형은 독거가 많았고, 읍면 지역보다 동부 지역, 대도시 거주 비중이 높았음
-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보장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포함)는 26%였음. 폐지 수집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평균 20여만원, 시간당 평균 2천2백원이었음

- 폐지수집 노인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은 71.7%였는데, 이는 일하는 노인(51%)보다 현저히 높았음. 폐지수집 노인 중 33.7%가 우울증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됨. 본인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는데도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폐지수집 노인은 29.1%였음. 그중 83.3%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함. 한편, 폐지수집 노인 중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은 21.8%였음
- 폐지수집 노인 중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는 노인은 77%였음(전체 노인은 85.3%). 건강상태가 좋으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0.07% (5,149명)로 추정됨

## □ 정책 제언

-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지원은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함
- 기초보장 수급 폐지수집 노인의 경우, 생계급여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의 소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비수급자이면서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의 경우 긴급생계지원 등을 통해 우선 보호하고, 국민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를 통한 돌봄과 상담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지역 보건소 이용 연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폐지수집 노인은 공용쓰레기장이 없고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골목길에서 폐지를 수집함. 노인들이 폐지수집 이외에 다른 소득원을 찾도록 연계하는 것이 우선 대책이 되어야 함. 폐지수집 노인을 독거노인처럼 지역사회의 우선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밀착,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한편, 건강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폐지수집 노인은 약 5천1백 여명이었음. 지자체, 수행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우선 참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도 가능할 것임

## □ 한계와 의미

- 폐지수집 노인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정책지원에 우선순위를 뒤야 함. 후속 연구에서는 폐지수집 노인들의 삶을 질적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회안전망 없이 과노동을 하는 노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 폐지수집 노인 사례 수는 92명으로 폐지수집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서울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해 표본의 편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는 폐지수집 노인의 전반적인 특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초보장수급자 비중: 서울시 전수조사 35%, 노인 실태조사(서울시 거주 폐지수집노인) 36.8%

주제어: 폐지수집 노인, 노인 빈곤, 과노동, 일하는 노인, 노년기 일, 노인일자리사업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폐지수집 노인은 고령자 노동 환경의 취약성(고령노동, 저임금, 과노동 등)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져 왔음
-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폐지수집 노인의 실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학술, 정책연구 역시 매우 미흡함.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수집 노인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간 편차가 크고 일시적, 시혜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을 확인하여 열악한 상황에 놓인 취약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폐지수집 노인에 관한 기초연구로 2차 자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폐지수집 노인의 기본 현황을 확인함
- 폐지수집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여건, 경제수준, 복지수급 실태 등을 확인하여 폐지수집 노인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함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 <표 1-1>과 같음. 본 연구는 65세 노인에게 대해 전국대표성이 있는 자료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해 폐지수집노인의 기초정보를 확인하고자 함. 다음 <표 1-1>은 본 연구의 연구 개요임

<표 1-1> 연구 개요

구 분	내용	분석방법
연구방법	1) 분석자료 - 노인실태조사 (다년도 자료 이용) 2) 분석방법 - 기술통계, 교차분석, 시계열분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대상(시기, 연령 등) 선정</li> <li>■ 기술통계, 교차분석, 시계열분석 등</li> </ul>
분석결과	1) 폐지수집 노인 규모 추정 2) 폐지수집 노인 특성 변화 3) 폐지수집 노인 특성 심층분석 4) 폐지수집 노인 심층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2017년 변화 분석</li> <li>■ 일반 노인, 일하는 노인과 폐지수집 노인과의 비교 분석</li> <li>■ 선형확률모형, 일반화회귀모형을 적용한 결정요인, 영향 분석</li> </ul>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 후속 연구과제 제시</li> </ul>

##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폐지수집 노인에 관한 실증 연구

- 폐지수집 노인에 관한 연구는 김해시의 실태조사 자료의 인터뷰 내용을 이용한 질적연구(배명선·김정자·최송식, 2016), 서울연구원의 생애사연구(소준철·서종건, 2015),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성은, 2017) 등이 있음
- 소준철·서종건(2015)은 서울 아현지역 폐지수집 노인 3명을 대상으로 생애사연구 방식을 적용해 사례연구를 진행함. 눈덩이표본추출 방식을 이용해 사례를 선정하여 5년 이상 폐지수집 일을 한 노인들의 폐지수집 경험을 심층분석함. 낮은 학력, 폐지수집 이유는 주로 소득 확보였으며, 공적도움보다는 사적도움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임
- 배명선·김정자·최송식(2016)은 김해 폐지수집노인 실태조사(199명) 결과를 이용해 폐지수집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생활비지출, 대인관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사, 생활형태와 우울수준 등을 분석하였음. 또한 노인 빈곤과 노년기 우울의 관점에서 특성별 우울수준의 차이와 경제적 상황과 폐지수집간의 차이를 분석함. 분석결과, 비수급노인 비중이 높았으며(58.3%),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형성은 낮고(동네 친구가 없는 경우 42.7%), 노인일자리사업 등 다른 일자리 참여의사는 높지 않았음(31.2%). 폐지수집노인 절반(50.8%)이 우울증 위험이 높았음
- 이성은(2017)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해 폐지수집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폐지수집 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5점만점에 2.7이었는데, 기존 연구의 저소득노인 건강수준 보다 높음. 성별, 우울, 낙상 두려움이 주관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특히 우울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빈곤취약계층의 정서적 개입의 중요성을 확인함

## 제2절 지자체 실태조사 현황

- 지자체별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곳은 서울, 수원, 광주, 김해 등 임. 지역별 실태조사 대상, 조사방법, 조사 문항 등 편차가 있음. 2016년 12월 기준으로 지자체에서는 총 19,623명의 폐지수집 노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되었으나(보건복지부), 폐지수집 노인의 구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음(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확인된 사례는 16,035명인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2,842명으로 17.7%인 것으로 추정)
- <표 2-1>은 지자체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중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임. 폐지수집 노인 중 수급자가 많았고, 여성의 비중이 높았음. 폐지수집을 통해 얻는 수입은 월평균 10만 원 안팎 수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2-1> 지자체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구 분	조사 시기	조사결과
서울시	2017년 9월 (강남구 제외)	총 2,417명 (24개 자치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만 65세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동 주민센터에서 재활용수집업체(고물상) 방문 조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 - 기초연금 수급자 87.7% 평균수입 10만원 미만 50%, 노인일자리 참여 28%
수원시	2018년 실태조사	조사결과 미발표 (현재 검토 중) ※ '17 조사결과: 630여명 파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층이 절반 가까이 됨 - 40% 가량은 1인 가구
김해시	2014년 2월	총 199명 (편의표집, Convenient sampling)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1.5%, 여성 66.8% -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60.3% - 월평균수입 5~10만원인 경우 18.8%, 20만원 이상 10.4%, 최고금액은 60만원이었음
광주시	2017년 실태조사	조사결과 미발표 ※ 보도내용: 폐지수집 시민 80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85.3% (698명), 장애인 34명

### 제3절 주요 쟁점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폐지수집 노인의 실태에 관해 적절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음. 실증 연구들은 일부 지역 사례 분석에 그치거나, 2차자료를 이용해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 연구 역시 건강이라는 특정 변수에 집중하여 분석함. 지자체 실태조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표본을 수집하고, 조사항목도 경제 수준과 건강상태 일부에 초점을 맞춤. 폐지수집 노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폐지수집 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함.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보도되고 있는 폐지수집 노인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취약집단임. 즉, 고물상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아니라 폐지를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해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노인임. 기존 연구들은 폐지수집 노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표 2-2> 폐지수집 노인의 정의

구 분	명칭	정의
소준철 서종건 (2015)	폐지수집 노인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공동의 쓰레기통이 없는 공간(자원순환 정책이 비제도화된 영역)에서 만들어진 변종의 직업.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넘마주이
배명선 외(2016)	폐지줍는 노인 (폐지수집노인)	생계형 폐지수집을 하는 저소득(빈곤) 노인
이성은 (2017)	폐지수집 노인	‘폐휴지 수거’를 하는 65세 이상 집단. 소득에서의 빈곤뿐 아니라 열악한 직무환경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 사회적 편견의 가능성 등 전반적인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안고 있는 집단

- 둘째,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 2012년 자원재활용연대는 폐지수집 노인이 175만명이라고 발표함. 이는 고물상 및 재활용업계 종사자 30만명에 비수급빈곤층 170만명을 고려해 추산한 수치로 알려짐.<sup>1)</sup> 고물상에

1) 소준철(2018). 폐지 수집 어르신 보호대책 마련 긴급토론회 발제문. (원혜영·김영진 의원 공동주최)

관한 정부 통계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식 통계를 근거로 폐지수집 노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sup>2)</sup> 일례로, 고물상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서울시(강남구 제외)의 2017년 65세이상 노인 123만4천명 중 폐지수집 노인은 2,417명으로 0.196%에 불과함. 저소득 생계형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정의할 경우 이 규모는 더 줄어들

- 셋째, 전국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음.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지역의 사례를 기반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을 분석함. 전국대표성이 있는 노인 실태조사를 이용한 연구의 경우에도 폐지수집 노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해당 특성이 노인의 전반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폐지수집 노인만의 고유한 특성인지 식별하기 어려움
- 넷째, 폐지수집 노인의 다면적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기존 연구들은 성별, 연령, 건강, 경제적 수준(기초보장 여부, 폐지 수입) 등을 확인함.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음. 폐지수집 노인의 삶을 설명하는 다양한 측면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들 간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폐지수집 노인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폐지수집 노인에 관한 기초정보를 확인하였음
  - 첫째, 전국대표성이 있는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를 추정함
  - 둘째, 기존 연구와 일반적인 폐지수집 노인에 관한 정의를 고려하여 생계를 이유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에 한정하였을 때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음
  - 셋째,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을 폐지수집을 하지 않는 일반 노인과 비교 분석하여 폐지수집 노인 고유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함

2) 강제성(2016: 48~49)에 따르면 2006년 환경부에서 파악한 고물상 수는 7,282개소임. 그러나 국내 고물상 관련 단체들은 전국 고물상을 7만여개로 추정함.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업태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현황'에 따르면 2004년 전국에서 15,800명이 재활용폐자원 거래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 제 3 장

# 분석방법

### 제1절 분석자료

- 본 연구는 2011년,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의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상태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 이어서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해 건강, 삶의 만족도, 근로환경 등을 확인함<sup>3)</sup>
-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실시된 법정조사로(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총 4회 조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공동 수행됨. 2017년에는 6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934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10,299명 (대리응답 226명 포함)에 대한 직접면접조사를 완료함. 폐지수집 노인에 관한 문항은 2011년부터 포함되었는데, 2011년에는 종사상 지위 문항 응답항목에, 2014년과 2017년에는 일의 내용 문항의 응답항목에 포함됨. 본 연구는 2011년과 2017년 자료를 이용해 폐지수집 노인의 기본특성 변화를 확인하고, 2017년도 자료를 이용해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확인하였음.<sup>4)</sup> 다음 <표 3-1>은

3) 노인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하는 조사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06년 현재 45세 이상 중고령자, 2016년 6차조사 완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국민연금연구원, 2000년 현재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2017년 7차조사 완료) 등이 있는데 이들 자료는 폐휴지 수거 문항이 없거나(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있더라도 소일거리 등으로 제한하여 사례 수가 한 자리에 그침(고령화연구패널조사).

4) 2011년, 2014년, 2017년도 자료를 이용해 폐지수집 노인의 기본특성을 확인한 결과 2014년도 자료의 경우 폐지수집 노인의 소득수준이 일반 노인과 크게 다른 경향을 보여서 변화를 확인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2014년 폐지수집 노인의 65~69세 연령 비중은 54.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교육수준 역시 대학 이상 고학력자가 38.7%였음. 2014년도 조사에서 폐지수집 노인에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고령자가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조사연도 자료와 즉자적인 비교가 어려웠음.

&lt;표 3-1&gt; 노인실태조사 개요(2011년, 2017년)

구 분	2011년	2017년
조사명칭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기간	2011.8.30.~11.29. (3개월간)	2017.6.12.~8.28. (약 3개월간)
조사대상	2008년 기준 만 60세 이상 (2011년 기준 만 63세 이상)	만 65세 이상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성격	종단조사, 횡단조사	횡단조사
설문지 종류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통계승인	통계승인번호 11771 변경승인	통계승인번호 11771 변경승인

자료: 정경희 외(2017)의 <표 3-1> 일부 발췌

주: 각 년도 내용은 다음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2011- 정경희 외(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2017년 노인실태조사 내용을 요약한 것임

- 분석자료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은 노인실태조사가 전체 폐지수집 노인을 얼마나 대표 하는가 임. 노인실태조사표본설계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의 전국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 리스트, 신축 아파트 조사구 리스트이고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 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함. 조사결과 공표가 16개 시·도별로 제시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16개 시·도별로 조사결과를 집계하기 위한 적정표본크기를 고려함. 16개 시·도별로 노인인구 수에 따라 제공근 비례 배분하여 층별 표본수를 배정 산출함(정경희 외, 2017)

- 폐지수집 노인은 쓰레기 공동수거가 어려운 지역에서 폐지, 재활용품을 수거하므로 도시지역, 그중에서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드문 지역에 거주함(소준철, 서종건, 2015). 전국단위 노인인구 분포를 반영해 지역별 표본의 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한 노인실태조사로는 폐지수집 노인 전체를 대표하는 적정 표본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sup>5)</sup>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잠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5) 한편, 노인실태조사에서 폐지수집 노인으로 파악된 사례는 2017년 기준 92명임. 노인실태조사는 국내 조사자료 중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고, 폐지수집 노인에 관해 매우 포괄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즉, 사례 수 제약으로 인한 실보다 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편의가 있을 수 있으며,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

## 제2절 분석방법

- 본 연구는 폐지수집 노인에 관한 기초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술통계(빈도, 평균, 교차분석)를 이용해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함. 본 연구에서 폐지수집 노인은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다음 <표 3-2>는 폐지수집 노인의 정의임

<표 3-2> 폐지수집 노인의 정의

구 분	2011년	2017년
폐지수집 노인	중사상지위 “폐휴지 수거”	일의 내용 “폐휴지 수거”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중사상지위 “폐휴지 수거” & 일을 하는 이유 “생계비 마련”	일의 내용 “폐휴지 수거” & 중사상지위가 고용주인 경우 제외 & 일을 하는 이유 “생계비 마련”

- 첫째, 2011년, 2017년 노인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해 폐지수집 여부로 측정된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 생계를 이유로 폐지를 수집하고 고용주가 아닌 노인으로 한정하였을 때(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폐지수집 노인 규모를 추정함. 이어서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와 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1년, 2017년 폐지수집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로특성, 경제 수준을 비교 분석함. 다음 <표 3-3>은 분석 변수의 개요임
- 둘째, 폐지수집 노인이 일반노인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노인, 폐지를 수집하지 않는 노인(이하 일반 노인), 폐지를 수집하지 않는 일하는 노인(이하 일하는 노인)과 비교하였음.
- 마지막으로, 폐지수집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폐지수집 노인이 될 위험요인)과 폐지수집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횡단면 자료이고 폐지수집 노인 사례 수가 적어서 변수간 엄밀한 인과관계를 설정하지 못하지만, 탐색적 차원에서 변수간 관계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였음. 첫째, 폐지수집 노인과 일반 노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폐지수집 여부, 생계형 폐지수집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적용해 분석함. 이를 통해 어떤 특성을 가진 노인들이 폐지를 수집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음. 둘째, 폐지수집이 노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지수집 여부, 생계형 폐지수집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건강상태, 우울증 의심, 삶의 만족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일반화회귀모형(Ordinary regression model)과 선형확률모형을 마련해 분석하였음. 다음 <표 3-4>는 심층분석에 적용한 모형 개요임

<표 3-3> 분석변수

구 분	2011년과 2017년 변화 비교	2017년 횡단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 유형, 거주지역, 거주지 유형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 유형, 거주지역, 거주지 유형
근로 특성	일의 내용, 종사상 지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2014, 2017년), 일하는 이유	일의 내용, 종사상 지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2014, 2017년), 일하는 이유 월평균소득, 시간당평균소득, 현재 일 지속기간, 현재 일 만족도, 현재 일 불만족 이유, 최장기 일을 그만둔 이유, 향후 근로 희망, 노인 일자리사업(참여 현황, 유형, 향후 참여 의사, 희망유형)
경제적 특성	가구소득, 개인소득, 주거유형(자가 등), 기초보장 수급 현황, 기초연금 수급현황	가구소득, 개인소득, 주거유형(자가 등), 기초보장 수급 현황, 기초연금 수급 현황, 가구소득 구성 및 구성비, 가구 자산 및 부채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개수, 우울증 의심 여부, 자살생각 여부
의료이용	-	병·의원 진료 못 한 경험, 못한 이유
안전실태	-	낙상 경험, 낙상 이유
삶의 만족도	-	건강, 경제수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 여가 문화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 만족도(5점 척도)

&lt;표 3-4&gt; 심층분석 모형 개요

구 분	폐지수집 결정요인 분석(위험요인)	폐지수집의 영향 분석
독립변수		폐지수집 여부(폐지수집=1) 생계형 폐지수집 여부 (생계형 폐지수집=1)
종속변수	폐지수집 여부(폐지수집=1) 생계형 폐지수집 여부 (생계형 폐지수집=1)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 좋음=1, 보통~나쁨, 매우 나쁨 =0) 우울의심 여부(우울의심=1, 낮음 = 0) 삶의 만족도 점수(4개영역, 20점만점)
통제변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유형, 배우자 유무, 가구유형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유형, 배우자 유무, 가구유형

## 제 4 장 분석결과

### 제1절 폐지수집 노인 규모 추정

- 전체 폐지수집 노인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표 4-1-1>과 같음. 2011년도 폐지수집 노인은 전체 노인의 1.2%, 일하는 노인의 3.5%였음. 2017년에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가 폐지수집을 한다고 응답함. 전체 노인 대비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하는 노인 대비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2017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규모 변화도 이와 유사하였음 (<표 4-1-2>)

<표 4-1-1> 전체 폐지수집 노인 규모 추정

(단위: %, 명)

구 분	노인실태조사				규모 추정	
	조사대상 (명)	폐지수집 (명)	전체 노인 (%)	일하는 노인 (%)	주민등록 노인 인구(명)	폐지 노인 추정(명)
2011	10,900	132	1.21	3.50	5,700,972	68,982
2017	10,083	92	0.90	2.94	7,356,106	66,205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표 4-1-2> 생계를 이유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규모 추정

(단위: %, 명)

구 분	조사대상 (명)	노인실태조사				규모 추정	
		폐지수집 (명, %)	생계형 폐지수집 (명, %)	주민등록 노인 인구(명)	생계형 폐지 노인 추정(명)		
2011	10,900	132	1.21	79	0.73	5,700,972	41,617
2017	10,083	92	0.90	63	0.63	7,356,106	46,344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2011년에는 고용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사상지위를 폐지수집과 통합해 질문하였음. 따라서 2011년도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생계를 이유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이며, 2017년은 “생계를 이유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중 고용주를 제외한 경우”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주민등록상 노인인구에 노인실태조사의 폐지수집 노인 비율을 적용해 전체 폐지 수집 노인 규모와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2011년 전체 폐지수집 노인은 6만8천명에서 2017년에는 소폭 감소해 6만6천명인 것으로 추정됨.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를 보면, 2011년 약 4만2천명에서 2017년 4만6천명으로 소폭 증가함
- 이상에서 확인한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그간 언론 등에서 언급된 규모(150~170만 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임. 그러나 기존 수치는 고물상 업체 수와 비수급노인 빈곤층 규모를 적용해 추정한 수치이므로 실제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2017년 서울시의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 강남구를 제외한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서울시 노인인구의 0.196%인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추정한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과소추정보다는 과대추정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임.<sup>6)</sup> 한편, 폐지수집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자산 조사를 근거로 공적급여를 받는 집단은 폐지수집을 한다고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잠정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

6) 스마트폰 보급 보편화에 따른 무료신문 감소, 폐지매입가격 하락 등을 고려할 때 폐지수집 노인 규모 감소는 합리적 추정임. 국내 무료신문 매출은 2011년 767억9천만원에서 2014년 58억8천만원으로 급감했으며, 폐지매입가격도 2011년 1kg당 199원에서 2014년 107원으로 감소함(서울경제. 2015.8.26. “그 많던 폐지줍는 노인은 어디로 갔을까? <https://www.sedaily.com/NewsView/1HNAP0BVFC>”). 이에 더해 중국 재활용 수출 규제로 인해 고물상 업체들이 폐업하는 등의 재활용 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폐지수집 노인의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18년 3월 기준 폐지가격은 1kg당 90원임(한국경제. 2018.4.4. “폐비닐 이어 폐지도 대란 조짐... 중국 수출 막히며 가격 30% 곤두박질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451801>”).

## 제2절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 변화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

#### 1) 폐지수집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

- <표 4-2-1>은 폐지를 수집하지 않는 일반 노인과 폐지수집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줌.<sup>7)</sup>
- 연령분포를 보면 일반 노인과 폐지수집 노인 전체적으로 75세 미만 초기노인(young aged) 비중이 감소하고,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의 영향임. 이러한 경향은 일반 노인보다 폐지수집 노인에게서 더 뚜렷하게 관찰됨. 성별의 경우, 폐지를 수집하지 않는 일반 노인(이하 일반노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6.8%에서 2017년 57.5%로 소폭 상승하였음. 반면, 폐지수집 노인 중 여성은 2011년 62.2%에서 2017년 51.6%로 10%포인트 감소하였음
- 배우자가 있는 노인 비중은 일반노인의 경우 2011년 67.7%에서 2017년 63.8%로 소폭 감소함. 반면, 폐지수집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 비중이 소폭 증가함(2011년 53.8%, 2017년 57.8%). 가구유형의 경우, 일반노인 중 독거노인 비중은 2011년 19.7%에서 2017년 23.9%로 증가함. 이는 폐지수집 노인에서도 유사하였는데 증가폭은 폐지수집 노인이 더 컸음(2011년 25.1%에서 33.2%로 증가). 가구원 수는 일반노인과 폐지수집 노인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교육수준의 경우 전체적으로 무학 비중이 감소하고 고졸 이상 학력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폐지수집 노인은 일반 노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았으며 그 격차는 2011년보다 2017년에 더욱 커졌음. 2011년 일반 노인 중 대학이상 고학력자는 7.0%, 폐지수집 노인 중 고학력자는 4.1%로 일반 노인보다 약 2.9%p 낮았는데, 2017년에는 일반 노인 고학력자 비중이 7.7%, 폐지수집 노인의 경우 2.0%로 5.7%p 낮음

7) 본 연구에서 시계열적 변화는 근로특성, 경제적 수준 등 제한적으로 확인함. 2011년 조사에서는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을 식별하기 위한 조사 문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임(폐지수집 노인의 고용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변화분석에서는 기본적 특성 변화를 분석함.

<표 4-2-1> 전체 폐지수집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 2011년, 2017년  
(단위: %, 명)

구 분	일반 노인(폐지수집 제외, %)		폐지수집 노인 (%)	
	2011	2017	2011	2017
연령				
65~69	29.99	33.03	22.74	18.36
70~74	30.54	25.18	35.08	24.28
75~79	22.66	21.14	22.06	28.46
80~84	10.98	13.02	13.93	15.56
85세 이상	5.82	7.63	6.20	13.35
성별				
여성	56.78	57.51	62.19	51.60
남성	43.22	42.49	37.81	48.40
결혼상태				
무배우자	32.28	36.25	46.24	42.29
유배우자	67.72	63.75	53.76	57.71
가구유형				
독거	19.72	23.90	25.08	33.16
노인부부	48.73	48.72	35.38	49.45
자녀동거	27.51	23.62	33.90	14.05
기타	4.04	3.77	5.64	3.33
가구원 수 평균(s.e.)	2.35(1.27)	2.10(1.00)	2.27(1.22)	1.82(0.77)
교육수준				
무학	31.28	23.63	55.03	37.00
초졸	35.57	34.21	28.94	41.28
중졸	13.56	17.00	9.31	15.65
고졸	12.61	17.51	2.66	4.12
대학 이상	6.97	7.65	4.06	1.96
거주 지역				
서울	18.08	18.16	18.16	39.33
부산	7.76	7.62	13.82	6.36
대구	5.02	4.79	7.19	7.16
인천	4.47	4.69	9.87	5.98
광주	2.64	2.49	2.89	1.57
대전	2.63	2.49	5.95	2.69
울산	1.72	1.61	2.3	3.36
세종	-	0.36	-	0.00
경기	19.21	19.98	21.13	16.07
강원	4.00	3.68	0.39	4.37
충북	3.56	3.42	1.89	3.15
충남	5.56	5.11	2.54	0.00
전북	5.00	4.80	3.98	0.76
전남	6.23	5.45	1.9	1.08
경북	7.67	7.12	3.65	3.73
경남	5.13	6.95	3.99	4.10
제주	1.32	1.30	0.35	0.30
거주지 유형				
동부	67.54	68.53	90.72	91.88
읍면부	32.46	31.47	9.28	8.12
계(명)	100.0(10,768)	100.0(9,991)	100.0(132)	100.0(92)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거주지역의 경우 일반 노인의 경우 거주지 분포에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폐지수집 노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 일반 노인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 비중은 2011년 18.1%, 2017년 18.2%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폐지수집 노인은 2011년 18.2%에서 2017년 39.4%로 두 배 이상 증가함. 거주지 유형의 경우 폐지수집 노인의 90% 이상이 동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

## 2)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

- 폐지수집 노인 중 폐지수집을 하는 이유(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 한다고 응답한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를 확인함
- <표 4-2-2>는 전체 폐지수집 노인 중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비중을 보여줌. 2011년 폐지수집 노인 중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약 60%였는데, 2017년에는 68.5%로 8.5%p 증가함. 2017년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중 고용주인 경우가 제외된 점을 고려할 때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비중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음

<표 4-2-2>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비중 변화: 2011, 2017년

(단위: %, 명)

구 분	폐지수집 노인 현황	
	2011	2017
폐지수집 노인	132	92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79	63
비중(%)	59.85	68.48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표 4-2-3>은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것임. 연령분포를 보면 2011년에는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중 8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더 낮았으나(폐지수집 노인 6.2%,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3.0%), 2017년에는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중 8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폐지수집 노인보다

<표 4-2-3>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 2011년, 2017년  
(단위: %, 명)

구 분	폐지수집 노인 (%)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	
	2011	2017	2011	2017
연령				
65~69	22.74	18.36	24.38	22.53
70~74	35.08	24.28	31.35	22.68
75~79	22.06	28.46	24.58	24.75
80~84	13.93	15.56	16.72	13.94
85세 이상	6.20	13.35	2.98	16.11
성별				
여성	62.19	51.60	62.31	54.02
남성	37.81	48.40	37.69	45.98
결혼상태				
무배우자	46.24	42.29	49.67	43.84
유배우자	53.76	57.71	50.33	56.16
가구유형				
독거	25.08	33.16	30.67	38.15
노인부부	35.38	49.45	29.74	48.89
자녀동거	33.90	14.05	33.06	10.02
기타	5.64	3.33	6.53	2.94
가구원 수 평균(s.e.)	2.27(1.22)	1.82(0.77)	2.11(1.05)	1.71(0.65)
교육수준				
무학	55.03	37.00	54.31	42.68
초졸	28.94	41.28	28.24	41.19
중졸	9.31	15.65	11.25	15.02
고졸	2.66	4.12	4.41	1.11
대학 이상	4.06	1.96	1.78	0.00
거주 지역				
서울	18.16	39.33	18.41	35.26
부산	13.82	6.36	7.05	6.23
대구	7.19	7.16	8.44	10.53
인천	9.87	5.98	14.88	4.90
광주	2.89	1.57	2.32	0.00
대전	5.95	2.69	6.22	3.04
울산	2.3	3.36	2.75	4.08
세종	-	0.00	-	0.00
경기	21.13	16.07	24.94	19.15
강원	0.39	4.37	0.65	4.35
충북	1.89	3.15	0.59	2.60
충남	2.54	0.00	1.4	0.00
전북	3.98	0.76	4.53	1.11
전남	1.9	1.08	1.09	1.59
경북	3.65	3.73	3.33	2.07
경남	3.99	4.10	2.90	4.66
제주	0.35	0.30	0.49	0.44
거주지 유형				
동부	90.72	91.88	91.23	89.42
읍면부	9.28	8.12	8.77	10.48
사례 수(명)	132	92	79	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더 커짐(폐지수집 노인 13.35%,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16.1%). 성별을 보면, 2011년과 2017년 모두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여성 비중이 더 높았음. 배우자 유무는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간 유사하였음. 그러나 가구유형에서 독거노인 비중은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에게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됨. 이는 2011년과 2017년 모두 유사함. 교육수준의 경우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교육수준이 폐지수집 노인 교육수준보다 낮았는데, 고학력자 비중은 2011년 1.8%에서 2017년 0.0%로 감소함. 거주지역의 경우,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대구, 경기지역 거주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거주지 유형에 있어서 폐지수집 노인에 비해 동부 거주자 비중이 다소 낮았음

<표 4-2-4> 일의 내용 변화: 2011년, 2014, 2017년

(단위: %, 명)

구 분	전체 노인			일하는 노인		
	2011	2014	2017	2011	2014	2017
일하는 노인(%)	-	-	-	-	-	-
농림어업	-	11.07	10.74	-	38.31	34.70
경비수위시설	-	1.92	1.83	-	6.65	5.91
청소	-	3.66	4.40	-	12.65	14.23
생산작업	-	0.79	1.30	-	2.75	4.20
가사돌봄	-	1.09	2.27	-	3.79	7.34
운전운송	-	1.29	1.69	-	4.48	5.46
전문직	-	1.00	0.59	-	3.46	1.92
행정사무	-	0.35	0.24	-	1.20	0.78
조리음식업	-	1.28	1.44	-	4.43	4.67
택배배달	-	0.11	0.19	-	0.38	0.61
현장관리	-	0.18	0.03	-	0.61	0.11
환경조경	-	0.31	0.44	-	1.07	1.44
건설기계	-	0.75	1.51	-	2.60	4.89
문화예술	-	0.15	0.04	-	0.51	0.14
공공질서	-	0.61	0.59	-	2.12	1.90
폐휴지수거	-	1.29	0.91	-	3.76	2.94
기타	-	1.09	2.71	-	4.46	8.77
판매영업직	-	1.96	-	-	6.78	-
사례 수(명)	10,900	10,281	10,083	3,685	2,970	3,120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2014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2. 근로 특성

- 근로특성은 일의 내용, 종사상 지위, 소득 등 일자리 특성, 일을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확인하였음
  - 첫째, 2011년에는 일의 내용 문항이 없어서 2011년과 2017년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2014년도 자료의 결과를 반영해 비교한 결과, 일하는 노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일은 2014년은 농림어업, 청소, 판매영업, 운전운송이었고, 2017년은 농림어업, 청소, 가사돌봄, 운전운송 순이었음
  - 종사상 지위를 보면, 노인들은 자영업,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음. 폐지수집 노인은 대부분(2017년 90.0%)가 자영업자라고 응답하였음(<표 4-2-5>)
  - 현재 일자리의 소득 등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일하는 노인과 폐지수집 노인 모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표 4-2-6>).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폐지수집 노인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됨(<표 4-2-7>)
  - 일하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노인들 대부분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 <표 4-2-5> 종사상 지위의 변화: 2011년, 2017년

(단위: %, 명)

구 분	일하는 노인(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2011	2017	2011	2017
상용근로자	3.27	5.81	-	0.00
임시근로자	8.37	34.29	-	0.00
일용근로자	10.07	9.29	-	4.71
고용주	1.28	1.31	-	0.00
자영업자	47.13	36.42	-	89.60
무급가족종사자	19.67	11.91	-	5.7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0.97	-	0.00
기타	6.67	-	-	-
폐지수거	3.54	-	-	-
계(명)	100.0 (3,644)	100.0 (3,028)	- (132)	100.0 (92)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011년은 종사상 지위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lt;표 4-2-6&gt; 현재 일자리 근로 특성 변화: 2011년, 2017년

(단위: %, 만원, 명)

구 분	일하는 노인(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2011	2017	2011	2017
주당 평균 근로일수(sd)	-	4.71(1.64)	-	5.61(1.39)
주당 평균 근로시간(sd)	36.61(19.79)	29.36(19.56)	27.54(16.56)	22.39(14.32)
월 평균소득(sd)	-	80.88(100.70)	-	19.67(33.68)
시간당 평균임금(sd)	-	0.77(2.14)	-	0.22(0.24)
사례 수(명)	3,512	3,028	132	92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011년은 근로 시간이 결측인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함. 평균소득은 조사연도 기준 전년도 한해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lt;표 4-2-7&gt;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일자리 근로 특성 변화 : 2011년, 2017년

(단위: %, 만원, 명)

구 분	일하는 노인(폐지수집 제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2011	2017	2011	2017
주당 평균 근로일수(sd)	-	4.71(1.64)	-	5.72(1.34)
주당 평균 근로시간(sd)	36.61(19.79)	29.36(19.56)	30.99(18.57)	24.81(15.32)
월 평균소득(sd)	-	80.88(100.70)	-	23.77(40.03)
시간당 평균임금(sd)	-	0.77(2.14)	-	0.24(0.27)
사례 수(명)	3,512	3,028	79	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011년은 근로 시간이 결측인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함. 평균소득은 조사연도 기준 전년도 한해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응답하였으며,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유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 순으로 높았음. 일하는 노인의 경우 최근에 ‘생계비 마련’ 응답 비중이 감소하고(2011년 79.7%에서 2017년 73.2%로 감소), ‘용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증가함(2011년 6.2%에서 2017년 11.1%). 폐지수집 노인의 경우 2011년과 2017년의 일하는 이유가 유사하였음. 폐지를 줍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이라고 응답한 노인은 2011년 68.5%, 2017년 68%였음(<표 4-2-8>). 이는 일하는 노인보다 낮았는데 폐지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기 때문일 수 있음

<표 4-2-8> 일을 하는 이유 변화: 2011년, 2017년

(단위: %, 만원, 명)

구 분	일하는 노인(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2011	2017	2011	2017
생계비 마련	79.72	73.15	68.45	68.01
용돈이 필요해서	6.23	11.07	24.33	24.92
건강 유지를 위해	5.59	6.01	4.80	5.56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0.17	0.67	0.00	0.00
시간을 보내기 위해	4.42	5.94	2.21	1.51
능력 발휘를 위해	1.30	1.31	0.00	0.00
경력 활용을 위해	1.63	1.62	0.00	0.00
기타	0.94	0.22	0.21	0.00
계(사례 수)	100.0 (3,684)	100.0 (3,028)	100.0 (121)	100.0 (92)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011년은 일하는 이유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표 4-2-9> 소득수준 및 주거유형 변화: 2011, 2017년

(단위: %, 만원, 명)

구 분	일반 노인(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2011	2017	2011	2017
가구소득(월, 만원)				
평균(sd)	113.54 (94.02)	144.26 (109.7)	78.96 (60.10)	83.05 (48.32)
개인소득(월, 만원)				
평균(sd)	71.39 (80.23)	99.14 (117.3)	57.24 (55.13)	57.03 (46.12)
주거유형(%)				
자가	74.47	71.14	63.15	53.40
전세	6.52	7.16	16.49	19.76
월세(보증금 있음)	8.33	11.27	12.86	15.11
월세(보증금 없음)	-	1.01	-	1.97
무상(자녀 등)	10.68	9.42	7.50	9.76
사례 수(명)	10,900	9,990	121	92

주: 1)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소득값이 미성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함.

2) 소득은 조사연도 기준 전년도 한해기준임. 기준임. 가구소득은 재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급여, 사적이전, 기타소득의 합이며,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 균등화 가구소득임. 각 연도 명목소득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3. 경제적 특성

- 경제적 특성은 가구소득(균등화), 개인소득, 주거유형을 분석함. 가구소득은 가구의 총소득으로 근로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사적이전, 공적연금, 기초보장, 기초연금, 기타 공적급여, 기타소득의 합으로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균등화하였음. 노인실태조사는 조사연도 기준 작년 1년간 소득을 조사하므로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표 4-2-9>)
- 일반노인의 월평균가구소득은 2011년 114만원에서 2017년 144만원으로 증가하였음.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가구소득은 일반 노인에 비해 낮았고 2011년 79만원에서 2017년 83만원으로 증가함. 일반 노인의 개인소득은 2011년 72만원에서 2017년 99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폐지수집 노인의 개인소득은 2011년과 2017년 모두 57만 원이었음. 노인의 주거유형은 자가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2011년 자가인 노인은 74.5%였는데, 2017년에는 다소 줄어들어 71.1%가 자가라고 응답함. 폐지수집 노인의 자가 비중은 일반 노인 보다 현저히 낮았고 2011년 63.2%에서 2017년 53.4%로 일반 노인보다 감소 폭이 컸음
-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은 전체 폐지수집 노인보다 낮은 수준이었음(<표 4-2-10>). 특히 자가 비중은 2011년 54.6%에서 2017년 49.5%로 감소함

### 4. 공적급여 수급 현황

- 여기서는 공적급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급여 수급 현황을 분석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4-2-11>). 일반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의 비중은 2011년과 2017년 각각 6.16%, 6.18%로 미미하게 감소함.<sup>8)</sup> 반면, 폐지수집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비중은 2011년 8.3%에서 2017년 22.6%로 크게 증가함.

8)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2017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변화가 있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수급비율은 다소 감소함. 65세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은 2011년 6.6%, 2017년 5.9%였음(보건복지부, 2011, 2017).

<표 4-2-10>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소득수준 및 주거유형 변화: 2011년, 2017년  
(단위: %, 만원, 명)

구 분	일반 노인(폐지수집 제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2011	2017	2011	2017
가구소득(월, 만원)				
평균(sd)	113.54(94.02)	144.26 (109.7)	60.98(44.97)	73.69(41.87)
개인소득(월, 만원)				
평균(sd)	71.39(80.23)	99.14 (117.3)	51.56(35.31)	59.34(49.55)
주거유형(%)				
자가	74.47	71.14	54.58	49.52
전세	6.52	7.16	15.76	18.19
월세(보증금 있음)	8.33	11.27	17.21	17.83
월세(보증금 없음)	-	1.01	-	2.89
무상(자녀 등)	10.68	9.42	12.45	11.56
사례 수(명)	10,900	9,990	79	63

주: 1)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소득값이 미싱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함.  
 2) 소득은 조사연도 기준 전년도 1년 기준임. 가구소득은 재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급여, 사적이전, 기타소득의 합이며,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균등화 가구소득임. 각 연도 명목소득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표 4-2-11>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변화: 2011년, 2017년  
(단위: %, 명)

구 분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2011	2017	2011	2017	2011	2017
전체 수급자(%)	7.13	7.71	8.95	25.99	12.15	25.06
기초보장 수급자	6.16	6.18	8.26	22.61	11.85	20.24
의료급여 수급자	0.97	1.53	0.69	3.28	0.30	4.82
사례 수(명)	10,893	9,991	121	92	79	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2011년은 기초보장 수급 여부가 미싱인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함.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자가 아니면서 의료급여 혜택만 받는 사례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이러한 변화는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측됨.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은 2011년 12.2%에서 2017년 25.1%로 증가하였음.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보장 수급자가 급증한 이유에 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일반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1년 일반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5.6%였으며, 2017년에는 소폭 상승해 69.9%가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응답함.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1년 83.4%에서 2017년 92.2%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에게서도 유사하게 관측됨(<표 4-2-12>).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일반 노인은 2011년 25.6%에서 2017년 35.1%로 증가하였으나, 폐지수집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비율은 2011년 17.03%, 2017년 16.96%로 거의 변화가 없었음. 한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수급 비율은 2011년 13.3%에서 2017년 18.2%로 소폭 증가함

<표 4-2-12>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 수급 현황 변화: 2011년, 2017년

(단위: %, 명)

구 분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2011	2017	2011	2017	2011	2017	
기초연금	수급(%)	65.64	69.89	83.37	92.24	85.57	95.30
	비수급(%)	36.46	30.11	16.63	7.76	14.43	4.70
공적연금	수급(%)	25.59	35.10	17.03	16.96	13.32	18.21
	비수급(%)	74.41	64.90	82.97	83.04	86.77	81.79
사례 수(명)	10,893	9,991	121	92	79	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기초연금 수급비율은 작년 1년 소득 중 기초연금 급여액이 있는 노인 비중을 계산한 값임. 공적연금은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제3절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 심층분석: 2017년

-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11년, 2017년 폐지수집 노인은 유사하면서도 다소 다른 특성을 보임. 2011년은 자료의 한계로 고용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노인을 제외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2011년과 2017년의 비교는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폐지수집 노인의 다면적 특성은 2017년 1개 연도 자료를 이용해 분석 함. 전체 노인과의 비교는 일하지 않는 노인과의 이질적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차이를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된 해석은 일하는 노인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함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표 4-3-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임. 폐지수집 노인은 일하는 노인에 비해 연령분포가 후기 노년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80세 이상 노인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됨. 일하는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은 8.4%에 그쳤으나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은 28.9%, 30.1%였음. 이는 고령임에도 폐지를 수집하는 고령자들이 많음을 보여줌. 성별을 보면, 일하는 노인의 47.2%가 여성이었는데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여성 비중은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음(폐지수집 51.6%, 생계형 폐지수집 54%)
- 일하는 노인의 73.9%가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독거인 경우는 18.6%였음. 폐지수집 노인 중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7.7%,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경우는 56.1%로 일하는 노인과 크게 차이가 있었음. 독거 비중은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각각 33.2%, 38.2%로 일하는 노인과 크게 차이가 있었음
- 교육수준의 경우 일하는 노인의 57.8%가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자였는데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중 저학력자 비중은 78.3%, 83.8%였음. 이는 폐지수집 노인이 다수가 저학력으로 인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 거주지역의 경우 일하는 노인의 12.1%가 서울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반면,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각각 39.3%, 35.3%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 동부와 읍면부로 살펴본 거주지 유형에서도 이러한 도시로의 쏠림이 확인됨. 일하는 노인의 절반(52.5%) 정도가 동부에 거주하는 반면,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91.9%, 89.4%가 동부에 거주한다고 응답함. 이는 폐지수집이 도시의 공동쓰레기장이 없는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일치함

<표 4-3-1>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7년

(단위: %, 명)

구 분	전체 노인 (%)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연령					
65~69	32.89	33.03	45.65	18.36	22.53
70~74	25.18	25.18	26.3	24.28	22.68
75~79	21.21	21.14	19.62	28.46	24.75
80~84	13.04	13.02	7.13	15.56	13.94
85세 이상	7.68	7.63	1.29	13.35	16.11
성별					
여성	57.45	57.51	47.18	51.60	54.02
남성	42.55	42.49	52.82	48.40	45.98
결혼상태					
무배우자	36.30	36.25	26.11	42.29	43.84
유배우자	63.70	63.75	73.89	57.71	56.16
가구유형					
독거	23.98	23.90	18.56	33.16	38.15
노인부부	48.72	48.72	56.50	49.45	48.89
자녀동거	23.53	23.62	20.57	14.05	10.02
기타	3.76	3.77	4.36	3.33	2.94
가구원 수 평균(sd)	2.10 (1.00)	2.10 (1.00)	2.11 (0.90)	1.82 (0.77)	1.71 (0.65)
교육수준					
무학	23.75	23.63	20.17	37.00	42.68
초졸	34.27	34.21	37.69	41.28	41.19
중졸	16.99	17.00	19.02	15.65	15.02
고졸	17.39	17.51	17.73	4.12	1.11
대학 이상	7.60	7.65	5.39	1.96	0.00
거주 지역					
서울	18.35	18.16	12.1	39.33	35.26
부산	7.61	7.62	6.29	6.36	6.23
대구	4.81	4.79	2.76	7.16	10.53
인천	4.70	4.69	4.06	5.98	4.90
광주	2.48	2.49	2.12	1.57	0.00
대전	2.49	2.49	1.92	2.69	3.04
울산	1.62	1.61	1.73	3.36	4.08
세종	0.35	0.36	0.24	0.00	0.00
경기	19.94	19.98	19.45	16.07	19.15
강원	3.68	3.68	4.99	4.37	4.35
충북	3.42	3.42	5.36	3.15	2.60
충남	5.06	5.11	7.45	0.00	0.00
전북	4.77	4.80	5.62	0.76	1.11
전남	5.41	5.45	6.81	1.08	1.59
경북	7.09	7.12	9.08	3.73	2.07
경남	6.92	6.95	8.24	4.10	4.66
제주	1.29	1.30	1.79	0.30	0.44
거주지 유형					
동부	68.74	68.53	52.46	91.88	89.42
읍면부	31.26	31.47	47.54	8.12	10.48
계(명)	100.0(10,083)	100.0(9,991)	100.0(3,028)	100.0(92)	100.01(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2. 근로 특성

- 근로 특성은 일의 내용, 종사상 지위, 현재 일자리의 근로일수, 근로시간, 월평균 소득, 시간당 평균소득, 월평균소득 분포, 현재 일자리의 일한 기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현재 일의 만족도,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최장기간 종사했던 일을 그만둔 이유, 향후 근로 희망 여부를 확인함
- 일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체 노인의 30.9%, 1만83명 중 3천 120명이 일을 한다고 응답하였음. 노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일은 농림어업으로 전체 노인의 34.7%가 농림어업 종사자였음.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일은 청소(14.2%), 기타(8.8%), 가사돌봄(7.3%), 경비수위시설(5.9%), 운전(5.5%)이었음

<표 4-3-2> 일의 내용

(단위: %, 명)

구분	전체 노인	일하는 노인
일하지 않는 노인(%)	69.06	-
일하는 노인(%)	30.94	-
농림어업	10.74	34.70
청소	4.40	14.23
기타	2.71	8.77
가사돌봄	2.27	7.34
경비수위시설	1.83	5.91
운전운송	1.69	5.46
건설기계	1.51	4.89
조리음식업	1.44	4.67
생산작업	1.30	4.20
폐휴지수거	0.91	2.94
전문직	0.59	1.92
공공질서	0.59	1.90
환경조경	0.44	1.44
행정사무	0.24	0.78
택배배달	0.19	0.61
문화예술	0.04	0.14
현장관리	0.03	0.11
계(명)	100.0(10,083)	100.0(3,120)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현재 일의 종사상 지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일하는 노인의 36.4%가 자영업자라고 응답하였으며, 임시근로자는 34.3%였음. 폐지수집 노인은 개인이 폐휴지를 수거해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므로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것으로 확인됨(폐지수집 노인의 89.6%,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87.2%). 한편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라고 응답한 노인은 각각 4.7%, 5.7%(생계형은 4.4%, 8.4%)였음
- 현재 일자리의 평균 근로일수의 경우, 일하는 노인은 평균 4.7일 일하는 반면, 폐지수집 노인은 5.6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5.7일 일하는 것으로 확인됨. 폐지수집 노인이 일하는 노인보다 약 하루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확인됨.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일하는 노인이 폐지수집 노인보다 더 많았음(일하는 노인 29.4시간, 폐지수집 노인 22.4시간). 일하는 노인의 월평균근로소득은 약 81만원이었음.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근로소득은 19만7천원이었으며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소득은 23만8천원이었음. 시간당 평균소득의 경우, 일하는 노인은 시간당 7천7백원을 벌지만 폐지수집 노인은 2천2백원,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2천4백원을 버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폐지수집 노인이 오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함

&lt;표 4-3-3&gt; 현재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 분	일하는 노인 전체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상용근로자	5.64	5.81	0.00	0.00
임시근로자	33.28	34.29	0.00	0.00
일용근로자	9.15	9.29	4.71	4.39
고용주	1.27	1.31	0.00	0.00
자영업자	37.99	36.42	89.6	87.23
무급가족종사자	11.73	11.91	5.70	8.3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0.94	0.97	0.00	0.00
계(명)	100.0(3,120)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일하는 노인 3,1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lt;표 4-3-4&gt; 현재 일자리의 근로 특성

(단위: 일, 시간, 만원, 명)

구 분	일하는 노인 전체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주당 평균 근로일수(sd)	4.74(1.64)	4.71(1.64)	5.61(1.39)	5.72(1.34)
주당 평균 근로시간(sd)	29.16(19.46)	29.36(19.56)	22.39(14.32)	24.81(15.32)
월평균소득(sd)	79.08(99.91)	80.88(100.70)	19.67(33.68)	23.77(40.03)
시간당 평균소득(sd)	0.75(2.11)	0.77(2.14)	0.22(0.24)	0.24(0.27)
계(명)	100.0(3,120)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일하는 노인 3,1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월평균근로소득을 금액 구간으로 나누어 분포를 확인하였음(<표 4-3-5>). 월 15만원 미만을 벌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일하는 노인의 19.8%였는데, 폐지수집 노인은 61.3%가 이에 해당함(생계형은 52.9%). 한편, 일하는 노인의 절반이(49.6%) 월 50만원 이상 번다고 응답한 반면, 폐지수집 노인은 4.1%에 그침(생계형은 6%)

&lt;표 4-3-5&gt; 현재 일자리의 월평균소득 분포

(단위: %, 명)

구 분	일하는 노인 전체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5만원 미만	12.57	12.58	12.44	13.32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2.31	1.90	16.02	5.41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3.03	2.63	16.09	18.8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06	2.64	16.75	15.36
2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21.28	21.21	23.42	26.36
2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18	2.21	1.28	1.02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3.92	3.76	9.21	12.68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35	3.43	0.69	1.02
50만원 이상	48.29	49.63	4.10	6.03
계(명)	100.0(3,120)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일하는 노인 3,1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현재 일자리의 일한 기간을 확인한 결과, 일하는 노인은 평균 18.8년 일한 반면, 폐지수집 노인은 이에 절반도 안 되는 기간(폐지수집 노인 8.7년, 생계형 폐지수집 9.8년) 동안 일한 것으로 확인됨. 일한 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일하는 노인의 44.2%였는데, 폐지수집 노인은 16.8%에 그침. 한편, 폐지수집 노인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일한 기간은 5년 이상 15년 미만이었음. 이는 폐지수집 노인의 다수가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 노년기로 이행한 후 폐지수집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표 4-3-6> 현재 일자리의 일한 기간

(단위: 년, %, 명)

구 분	일하는 노인 전체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일한 연수 평균(sd)	18.53(18.29)	18.82(18.43)	8.73(8.09)	9.75(8.93)
1년 미만	8.10	8.22	4.24	3.38
1년 이상 2년 미만	9.07	9.10	8.28	6.46
2년 이상 3년 미만	6.75	6.72	7.73	7.93
3년 이상 5년 미만	10.88	10.66	17.97	15.84
5년 이상 10년 미만	12.25	11.89	24.07	21.14
10년 이상 15년 미만	9.59	9.25	20.96	27.40
15년 이상 20년 미만	5.17	5.25	2.65	0.00
20년 이상	38.20	38.93	14.11	17.86
계(명)	100.0(3,120)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일하는 노인 3,1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lt;표 4-3-7&gt; 현재 일을 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일하는 노인 전체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비 마련	73.00	73.15	68.01
용돈이 필요해서	11.48	11.07	24.92
건강 유지를 위해	5.99	6.01	5.56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0.65	0.67	0.00
시간을 보내기 위해	5.81	5.94	1.51
능력 발휘를 위해	1.27	1.31	0.00
경력 활용을 위해	1.57	1.62	0.00
기타	0.22	0.22	0.00
계(명)	100.0(3,120)	100.0(3,028)	100.0(92)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일하는 노인 3,1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일하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표 4-3-7>), 일하는 노인의 73.2%, 폐지수집 노인의 68.1%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고 응답함. 이어서 높은 분포를 보인 응답은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였음. 폐지수집 노인의 경우 ‘용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노인이 24.9%로 일하는 노인 11.1% 보다 높았음
- 현재 일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표 4-3-8>), 일하는 노인의 65.2%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폐지수집 노인 중 일에 만족하는 경우는 30.1%,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2.1%에 그쳤고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0%였음
-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을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4-3-9>). 일하는 노인은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시간 불만족 이유가 다양했는데, 폐지수집 노인은 낮은 급여와 건강 상태라고 응답하였음. 일하는 노인의 64.9%가 낮은 급여(소득)라고 응답하였으며,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각각 78.0%, 81.1%가 여기에 해당함

&lt;표 4-3-8&gt; 현재 일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일하는 노인 전체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매우 만족한다	7.80	8.04	0.00	0.00
만족한다	56.33	57.13	30.11	2.10
그저 그렇다	18.53	18.36	24.23	22.37
만족하지 않는다	15.34	14.60	40.02	48.3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99	1.88	5.64	8.29
계(명)	100.0(3,120)	100.0(3,028)	100.0(92)	100.0(630)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일하는 노인 3,1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lt;표 4-3-9&gt; 현재 일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일하는 노인 전체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낮은 급여(소득) 수준	65.89	64.88	77.98	81.12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	19.22	18.98	22.02	18.88
불안정한 일자리	4.52	4.90	0.00	0.00
근로시간	4.13	4.48	0.00	0.00
일(업무)의 내용	6.02	6.52	0.00	0.00
대인관계	0.23	0.24	0.00	0.00
계(명)	100.0(541)	100.0(499)	100.0(42)	100.0(35)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일하는 노인 3,1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일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폐지수집 노인은 그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폐지수집 노인이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을 그만둔 이유를 확인한 결과(표 <4-3-10>),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업, 휴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근로조건 환경이 나빠서’ 순으로 높았음. 현재 일자리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가 같다고 응답한 경우를 확인한 결과, 일하는 노인의 46.9%, 폐지수집 노인의 19.3%,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21.3%가 현재 하는 일과 가장 오래 한 일이 같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앞에서 확인한 일한 기간(<표 4-3-6>)과 일치하는 결과임
- 향후 일하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체 노인의 66.4%가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일하는 노인은 21.4%, 폐지수집 노인의 29%에 그침. 한편, 동일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는 일하는 노인의 경우 7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폐지수집 노인은 55.4%로 확인됨. 폐지수집 노인 중 절반 이상이 폐지수집 일을 지속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지금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은 일하는 노인은 5.4%에 불과하였으나, 폐지수집 노인은 15.6%, 12.6%였음. 폐지수집이 아닌 다른 일을 원하는 노인에 대해 일자리 연계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표 4-3-10> 최장기 일자리 그만둔 이유(일 경험 없는 경우 제외)

(단위: %, 명)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정년퇴직	11.61	11.66	8.22	6.32	3.85
건강이 좋지 않아서	28.83	28.86	11.37	25.33	26.41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업, 휴업	20.19	20.09	14.81	30.14	29.86
가사문제(육아, 가사, 간병)	7.64	7.69	3.79	2.04	0.00
근로조건 및 환경이 나빠서	6.67	6.64	5.74	9.54	12.10
이직, 창업, 승진	5.06	5.06	5.87	4.99	3.82
일할 필요가 없어서	2.19	2.21	0.59	0.76	1.11
기타	2.01	2.01	2.69	1.57	1.53
현재 일자리와 동일	15.82	15.78	46.91	19.32	21.32
계(명)	100.0 (9,109)	100.0 (9,017)	100.0 (3,028)	100.0 (92)	100.0 (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생애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현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참여하는 경우 사업유형, 참여 희망 여부 및 희망 사업유형을 확인하였음
- 전체 노인의 85.3%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4.6%, 참여 중인 노인은 6.7%였음. 일하는 노인 중 신청한

<표 4-3-11> 향후 근로 희망 현황

(단위: %, 명)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일을 하고 싶지 않다	66.35	66.69	21.44	29.01	32.28
동일 직종 일을 계속 하고 싶다	22.46	22.16	73.12	55.43	55.08
지금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	1.78	1.65	5.44	15.56	12.64
지금 일하지 않지만 앞으로 희망	9.41	9.50	0.00	0.00	0.00
계(명)	100.0 (10,083)	100.0 (9,991)	100.0 (3,028)	100.0 (92)	100.0 (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표 4-3-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 노인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참여 중	6.69	6.75	22.71	0.00	0.00
참여한 적 있음	4.59	4.49	2.65	15.68	12.50
신청했으나 기회 없음	3.47	3.44	1.43	6.90	3.30
신청한 적 없음	85.25	85.32	73.75	77.42	84.21
계(명)	100.0 (10,083)	100.0 (9,991)	100.0 (3,028)	100.0 (92)	100.0 (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재산소득이 미성인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lt;표 4-3-13&gt;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유형

(단위: %, 명)

구 분	전체 노인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참여자 %	6.69	6.75	22.71	0
참여 유형(%)				
공익형	85.72	85.72	85.82	-
재능나눔	3.47	3.47	3.32	-
시장형사업단	5.52	5.52	5.54	-
인력파견형	1.92	1.92	1.93	-
시니어인턴십 등	3.37	3.37	3.38	-
계(명)	100.0(675)	100.0(675)	100.0(672)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73.8%, 참여 중인 노인은 22.7%였음. 폐지수집 노인 중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는 77.4%,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84.2%이었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노인은 없었지만 참여한 적이 있는 노인은 폐지수집 노인 15.7%,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12.5%로 일반 노인, 일하는 노인에 비해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노인의 비중은 높았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사업 유형을 확인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실적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됨. 전체 노인의 85.7%가 공익형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장형사업단, 재능나눔, 시니어인턴십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 노인의 16.2%, 일하는 노인의 29.2%가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함(<4-3-14>). 별도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94.8%가 이후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노인 중 6.9%가 참여를 희망하였음. 참여하길 원하는 사업유형은 공공시설 봉사, 노노케어, 인력파견형 순으로 높았음.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공공시설 봉사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lt;표 4-3-14&gt;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유형 (참여 희망자 대상)

(단위: %, 명)

구 분	전체 노인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참여 희망자(%)	16.24	16.19	29.23	21.26	16.54
노노케어	36.91	37.23	37.29	10.39	6.73
취약계층지원	3.45	3.45	2.22	3.55	6.71
공공시설봉사	40.59	40.33	42.83	62.07	65.10
경륜전수활동	2.79	2.83	2.06	0.00	0.00
시장형사업단	4.99	5.05	4.54	0.00	0.00
인력파견형	4.22	4.08	3.93	15.94	21.45
시니어인턴십 등	7.05	7.04	7.13	8.06	0.00
계(명)	100.0(1,691)	100.0(1,671)	100.0(978)	100.0(20)	100.0(11)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폐지수집 노인은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4. 경제적 특성

- 경제적 특성은 소득수준, 주거유형, 가구소득 구성비, 가구자산 및 부채를 중심으로 확인함
- 소득과 주거유형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4-3-15>). 전체 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43만7천원이었음. 일하는 노인의 가구소득은 이보다 높은 수준인 158만9천원이었음. 폐지수집 노인은 일하는 노인의 절반 수준이었음(83만1천원).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가구소득은 가장 낮은 월73만7천원이었음. 노인 개인의 소득 역시 가구소득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일하는 노인의 월소득은 138만2천원이었는데, 폐지수집 노인은 57만원,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59만3천원에 그침. 주거유형은 전체 노인의 71%가 자가라고 응답하였으며, 일하는 노인은 79%로 전체 노인보다 자가 비중이 8퍼센티지 포인트 높았음. 폐지수집 노인의 자가 거주 비중은 53%,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50%에 그침

<표 4-3-15> 소득 및 주거유형

(단위: 만원, %, 명)

구 분	전체 노인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가구소득(월, 만원)					
평균(sd)	143.71(109.46)	144.26(109.71)	158.95(112.24)	83.05(48.32)	73.69(41.87)
개인소득(월, 만원)					
평균(sd)	98.75(116.89)	99.14(117.28)	138.24(144.74)	57.03(46.12)	59.34(49.55)
주거유형(%)					
자가	70.98	71.14	79.02	53.40	49.52
전세	7.28	7.16	5.25	19.76	18.19
월세(보증금 있음)	11.31	11.27	8.00	15.11	17.83
월세(보증금 없음)	1.02	1.01	0.79	1.97	2.89
무상(자녀 등)	9.42	9.42	6.94	9.76	11.56
계(명)	100.0(10,082)	100.0(9,990)	100.0(3,028)	100.0(92)	100.0(63)

주: 1)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재산소득이 미성인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작년 한 해(2016. 1. 1.~2016. 12. 31.) 기준임. 가구소득은 재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급여, 사적이전, 기타소득의 합이며, 가구원 수 제공근으로 나눈 가구균등화 가구소득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가구소득 구성과 구성비를 확인하였음(<표 4-3-16>). 일하는 노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음. 일하는 노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비중이 각각 28.7%, 23.1%였음. 그러나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기초연금 비중이 가장 높았음. 폐지수집 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비중은 13.1%, 20.5%였는데, 기초연금 비중 28.4%보다 낮았음.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비중은 8.1%, 24.4%, 기초연금 비중은 31.2%였음
-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 비중은 일하는 노인과 폐지수집 노인 모두 비슷한 비중을 보임. 그러나 절대액수는 크게 차이 남. 일하는 노인은 연평균 302만원의 사적이전 소득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폐지수집 노인은 172만7천원에 그침

&lt;표 4-3-16&gt; 가구소득 구성 및 구성비

(단위: 만원,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평균	%	평균	%	평균	%	평균	%	평균	%
근로소득	876.55	22.69	881.33	22.78	981.89	28.71	344.66	13.05	153.41	8.13
사업소득	344.45	9.52	334.87	9.42	780.47	23.05	289.11	20.47	310.58	24.41
재산소득	223.06	7.01	224.35	7.03	124.66	4.73	82.13	4.73	39.08	2.44
퇴직연금	3.35	0.08	3.39	0.08	1.94	0.05	0.00	0.00	0.00	0.00
개인연금	7.27	0.23	7.32	0.23	4.00	0.11	2.63	0.08	0.00	0.00
주택/농지연금	4.21	0.22	4.25	0.22	2.78	0.12	0.00	0.00	0.00	0.00
공적연금	378.17	13.45	380.71	13.51	300.51	11.02	100.69	6.39	95.60	6.74
기초연금	215.70	15.75	215.02	15.64	211.31	13.15	289.48	28.41	294.55	31.19
기초보장급여	32.35	3.15	31.73	3.08	5.56	0.40	100.54	10.12	98.12	10.22
기타 공적급여	82.99	3.62	83.61	3.65	82.30	3.05	15.89	1.13	14.10	0.93
사적 이전소득	390.45	23.64	392.45	23.70	302.02	16.14	172.70	15.57	168.07	15.91
기타소득	23.08	0.63	23.28	0.64	22.69	0.59	0.46	0.04	0.00	0.00
계(명)	100.0(10,082)		100.0(9,990)		100.0(3,028)		100.0(92)		100.0(63)	

주: 1)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재산소득은 미성인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작년 한 해(2016. 1. 1.~2016. 12. 31.) 기준임. 연간 소득 평균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가구자산 및 부채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4-3-17>). 전체 노인의 자산 총액은 평균 2억8천9백만원이었음. 일하는 노인은 이보다 조금 높은 3억원 수준이었음. 그러나 폐지수집 노인의 자산총액은 일하는 노인의 1/3 수준인 1억1천만원에 그쳤으며, 생계형은 1억원 이었음. 부채총액은 전체 노인은 2천4백만원, 일하는 노인은 2천3백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폐지수집 노인은 7백만원, 생계형 폐지수집노인은 1천만원이었음

## 5. 공적급여 수급 현황

- 공적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수급 현황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표 4-3-18>). 노인 전체의 기초

<표 4-3-17> 가구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만원,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평균	%	평균	%	평균	%	평균	%	평균	%
자산총액(만원)	28,963	100.0	29,126	100.0	30,065	100.0	11,359	100.0	10,428	100.0
부동산자산	24,506	75.81	24,643	75.78	25,341	76.36	9,495	80.14	9,004	82.15
금융자산	3,651	20.84	3,671	20.86	3,257	18.61	1,449	18.39	874	15.99
기타자산	847	3.35	851	3.36	1,467	5.03	416	1.47	550	1.86
부채총액(만원)	2,381		2,397		2,307		725		1,017	
사례 수(명)	10,079		9,987		3,028		92		63	

주: 1)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산이 미성인 4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작년 한 해(2016. 1. 1.~2016. 12. 31.)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표 4-3-18> 기초보장급여 수급 현황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전체 수급자(%)	7.86	7.71	1.91	25.99	25.06
기초보장 수급자	6.32	6.18	0.64	22.61	20.24
의료급여 수급자	1.54	1.53	1.27	3.28	4.82
사례 수(명)	10,083	9,991	3,028	92	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보장 수급자 비율은 6.3%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할 경우 7.9%였음. 일하는 노인의 기초보장 수급 비율은 0.6%에 그쳤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할 경우 1.9%였음.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보장 수급자는 22.6%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면 26.0%로 증가함.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기초보장 수급 비율은 25.1%였음. 이 같은 결과는 폐지수집 노인 5명 중 1명은 기초보장 수급자인 빈곤층임을 보여줌

-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현황은 다음 <표 4-3-19>와 같음. 노인 중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34.9%였으며, 일하는 노인은 이보다 높은 45.8%가 공적연금 수급자였음. 그러나 폐지수집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17.0%(생계형은 18.2%)에 그침. 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보면, 전체 노인의 71%가 기초연금 수급자였음. 일하는 노인은 이보다 다소 낮은 68.2%였음. 반면,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92.2%, 95.3%가 기초연금 수급자였음. 폐지수집 노인 대부분이 저소득 집단임을 알 수 있음

<표 4-3-19>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 현황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공적연금 수급자	34.93	35.10	45.75	16.96	18.21
공적연금 비수급자	65.07	64.90	54.25	83.04	81.79
계(명)	100.0(10,083)	100.0(9,991)	100.0(3,028)	100.0(992)	100.0(63)
기초연금 수급자	70.09	30.11	68.19	92.24	95.30
기초연금 비수급자	29.91	69.89	31.81	7.76	4.70
계(명)	100.0(10,083)	100.0(9,991)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lt;표 4-3-20&gt;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매우 건강하다	2.17	2.17	3.51	1.81	0.00
건강한 편이다	34.81	34.88	45.61	26.48	26.27
그저 그렇다	23.31	23.28	25.31	27.31	23.48
건강이 나쁜 편이다	34.93	34.86	23.91	43.36	48.73
건강이 매우 나쁘다	4.78	4.81	1.67	1.04	1.53
계(명)	100.0(10,083)	100.0(9,991)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6. 건강상태 및 안전

-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개수, 우울증 의심 여부, 자살생각 여부에 관해 확인함. 안전은 낙상 경험 여부와 낙상 이유를 확인함
-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인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평소 건강상태를 의미하며(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매우 건강하다’부터 ‘건강이 매우 나쁘다’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함(<표 4-3-20>). 전체 노인 중 건강이 나쁜 노인(‘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은 63%였으며, 일하는 노인은 50.9%가 건강이 나쁜 것으로 확인됨. 폐지수집 노인은 건강이 나쁜 경우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폐지수집 노인 중 건강이 나쁜 노인은 71.7%였으며,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73.7%가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함. 이는 폐지수집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폐지를 수집하고 있음을 보여줌
- 만성질환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의 개수를 확인함. 만성질환은 조사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경우, 질병의 형태가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의 기한을 요하는 만성질환인 경우로 한정하여 그 개수를 확인함.<sup>9)</sup>

9) 만성질환에는 다음과 같은 질환이 포함됨. 고혈압, 뇌졸중(중풍, 뇌경색, 뇌출혈), 고지혈증, 협심증

&lt;표 4-3-21&gt; 만성질환 개수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0개	10.49	10.53	15.13	5.90	5.04
1개	16.51	16.51	19.87	16.70	17.62
2개	22.04	22.02	23.44	24.48	31.27
3개 이상	50.96	50.94	41.56	52.92	46.07
계(명)	100.0(10,083)	100.0(9,991)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lt;표 4-3-22&gt; 우울증 의심 여부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우울증 의심	21.09	20.98	10.87	33.74	37.34
우울증상 8개 미만	78.91	79.02	89.13	66.26	62.66
계(명)	100.0(10,083)	100.0(9,991)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만성질환 개수를 확인한 결과(<표 4-3-21>), 만성질환 개수가 3개 이상인 노인은 전체 노인의 51%였음. 일하는 노인은 이보다 낮은 41.6%였음. 폐지수집 노인은 일하는 노인보다 10퍼센티지 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었음(폐지수집 노인 52.9%,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46.1%). 한편, 일하는 노인 중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15.1%였는데, 폐지수집 노인은 1/3수준인 5.9%(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5.0%)에 불과함

및 심근경색증, 기타 심장질환(심부전, 부정맥 등),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좌골신경통,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결핵, 암, 간염, 치매, 파킨슨병 등임.

- 우울증 의심 여부는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를 사용하여 15개 문항에 대해 8개 이상 우울증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울증 의심으로 판정하였음(정경희 외, 2017). 전체 노인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노인은 21.1%였음(<표 4-3-22>). 일하는 노인은 절반 수준인 10.9%였음. 그러나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우울증 의심 노인 비중은 매우 높았음. 폐지수집 노인의 33.7%,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37.3%가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됨
- 만60세 이후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4-3-23>). 전체 노인 중 6.7%가 만60세 이후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일하는 노인은 이보다 적은 5.1%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그러나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각각 14.6%, 15.2%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자살 위험이 높음을 보여줌

&lt;표 4-3-23&gt; 만60세 이후 자살 생각 여부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자살 생각한 적 있음	6.68	6.61	5.10	14.59	15.20
자살 생각한 적 없음	93.32	93.39	94.9	85.41	84.80
계(명)	100.0(10,083)	100.0(9,991)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노인들의 안전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낙상 경험 여부와 이유를 분석함(<표 4-2-24>). 낙상은 지난 1년간 넘어짐, 미끄러짐 또는 주저앉은 경험이 있는지로 확인함. 전체 노인 중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은 15.7%였으며, 일하는 노인의 12.5%가 낙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폐지수집 노인은 이보다 높은 21.8%(생계형은 20.8%)가 낙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낙상 이유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보도나 문턱에 걸려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폐지수집 노인은 ‘보도나 문턱에 걸려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9.3%(생계형은 4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lt;표 4-3-24&gt; 낙상 경험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낙상 경험 있음	%	15.74	15.68	12.48	21.82	20.83
	명	1,587	1,567	378	20	13
바닥이 미끄러워서		26.93	26.90	31.33	29.03	31.61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5.95	5.98	8.88	3.46	0.00
보도나 문턱에 걸려서		16.79	16.50	18.06	39.33	47.47
낙경사가 급해서		3.70	3.75	3.46	0.00	0.00
상조명이 어두워서		1.28	1.30	2.85	0.00	0.00
이 다리를 접질려서		14.15	14.15	12.56	14.52	9.25
유 갑자기 어지러워서		11.61	11.66	9.29	7.57	11.66
다리에 힘이 풀려서		19.31	19.48	13.21	6.10	0.00
기타		0.29	0.29	0.37	0.00	0.00
계(명)		100.0(10,083)	100.0(9,991)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폐지수집 노인 중 낙상경험이 있는 노인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7.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은 노인이 주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병의원에는 보건(지, 진료)소, 한의원 등이 모두 포함됨. 의료서비스는 포괄적 개념으로 치료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예방접종, 조기검진, 건강검진 등),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두 포함됨(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노인 중 병원 및 의원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8.6%였음(<표 4-3-25>). 일하는 노인의 7.6%가 병원 및 의원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폐지수집 노인은 29.1%(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31.4%)로 10명 중 3명의 폐지수집 노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병원 및 의원 진료를 못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이어서 ‘가벼운 증상’, ‘거동 불편’ 순으로 높았음. 일하는 노인의 44.1%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병원 및 의원 진료를 못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폐지수집 노인은 83.3%,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91.7%였음. 폐지수집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제약은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폐지수집 노인 중 의료서비스 이용을 못 했다고 응답한 노인은 사례 수가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표 4-3-25> 병원 및 의원 진료를 못 받은 경험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병원, 의원 진료를 못 받음	% 8.64 명 872	8.45 845	7.62 238	29.14 27	31.37 21
경제적 어려움	50.14	49.09	44.14	83.27	91.73
교통 불편	4.23	4.37	2.83	0.00	0.00
거동 불편	11.67	11.89	0.62	4.5	6.14
의료정보 부족	1.79	1.85	1.33	0.00	0.00
이 유 진료 대기	1.85	1.86	3.24	1.56	2.13
가벼운 증상	17.65	18.14	25.42	2.12	0.00
두려움	7.29	7.25	6.57	8.56	0.00
가사 등 시간 부족	5.06	5.22	15.22	0.00	0.00
기타	0.31	0.32	0.64	0.00	0.00
계(명)	100.0(872)	100.0(845)	100.0(238)	100.0(27)	100.0(21)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경우 병원, 의원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례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8.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는 건강, 경제수준, 배우자, 자녀, 여가 및 문화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 총 6개 영역의 삶의 만족도를 확인함. 삶의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5구간 척도로 측정하였음
- 다음 <표 4-3-26>은 ‘전혀 만족하지 않음’을 0점으로, ‘매우 만족한다’를 4점으로 하였을 때의 평균 점수를 분석한 결과임. 배우자와 자녀 관계 만족도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사례만 대상으로 분석함. 분석결과, 건강, 경제수준, 여가 및 문화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에 관한 만족도(총점 16점)는 노인 전체 평균은 8.6점으로 중간 수준이었음. 일하는 노인은 9.3점으로 다소 높았음. 폐지수집 노인은 6.9점,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6.6점으로 일하는 노인의 2/3 수준에 그쳤음. 각 영역에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건강과 경제수준으로 전체적으로 평균 2점이 안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폐지수집 노인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의 건강과 경제수준 만족도는 1점대에 그침. 또한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 점수도 현저히 낮았음

<표 4-3-26> 삶의 만족도 점수 평균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4개 영역* 총점(sd)	8.64(2.63)	8.66(2.63)	9.33(2.31)	6.88(2.23)	6.55(2.11)
건강	1.94	1.94	2.24	1.82	1.77
경제수준	1.90	1.90	2.02	1.19	1.12
배우자	2.71	2.71	2.75	2.41	2.37
자녀	2.76	2.77	2.84	2.11	2.01
여가, 문화활동	2.29	2.29	2.39	1.80	1.69
친구, 지역사회	2.52	2.52	2.67	2.08	1.97
사례 수(명)	10,083	9,991	3,028	92	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사례의 평균임.

\* 4개 영역은 건강, 경제 수준, 여가 및 문화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다음으로 각 영역별 만족도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3-27> 건강 만족도 분석 결과임. 건강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37%였음. 일하는 노인은 48.7%가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폐지수집 노인은 그에 절반 정도 수준인 25.3%가 건강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23.6%에 그침

&lt;표 4-3-27&gt; 건강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매우 만족함	2.66	2.66	4.20	2.89	1.59
만족함	34.38	34.49	44.51	22.37	22.03
그저 그렇다	24.03	23.97	25.48	29.74	27.71
만족하지 않음	32.42	32.32	22.79	43.15	48.67
전혀 만족하지 않음	6.51	6.55	3.01	1.86	0.00
계(명)	100.0(10,083)	100.0(9,991)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표 4-3-28>은 경제수준 만족도 분석 결과임. 경제수준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28.8%였음. 일하는 노인은 33.8%가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폐지수집 노인은 그에 한참 못 미쳤음. 폐지수집 노인의 6.6%만이 경제수준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5.7%에 그침

<표 4-3-28> 경제수준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매우 만족함	0.93	0.94	1.15	0.00	0.00
만족함	27.85	28.04	32.64	6.64	5.66
그저 그렇다	35.96	36.12	36.97	19.05	16.81
만족하지 않음	30.31	30.03	25.94	61.28	61.76
전혀 만족하지 않음	4.95	4.87	3.30	13.03	15.77
계(명)	100.0(10,083)	100.0(9,991)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표 4-3-29>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임. 배우자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71.6%였음. 일하는 노인은 74.5%가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폐지수집 노인의 52.2%만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47.5%에 그침

<표 4-3-29>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매우 만족함	6.12	6.18	7.19	0.00	29.72
만족함	65.52	65.63	67.35	52.19	17.75
그저 그렇다	21.62	21.53	19.21	32.86	8.69
만족하지 않음	5.75	5.71	5.44	10.25	0.00
전혀 만족하지 않음	0.80	0.79	0.65	1.31	0.00
계(명)	100.0(6,423)	100.0(6,371)	100.0(2,251)	100.0(53)	100.0(35)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표 4-3-30>은 자녀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임. 배우자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76.7%였음. 일하는 노인은 80.4%가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폐지수집 노인의 41.3%만이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39.8%에 그침

<표 4-3-30>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매우 만족함	8.01	8.08	8.74	0.00	0.00
만족함	68.71	68.95	71.7	41.3	39.79
그저 그렇다	16.6	16.43	14.73	36.54	33.44
만족하지 않음	5.08	5.00	4.07	14.03	14.84
전혀 만족하지 않음	1.6	1.55	0.75	8.13	11.93
계(명)	100.0(9,848)	100.0(9,762)	100.0(2,995)	100.0(86)	100.0(59)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표 4-3-31>은 사회 여가, 문화활동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임.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47.7%였음. 일하는 노인은 52.2%가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폐지수집 노인의 20.6%만이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20.1%에 그침

<표 4-3-31> 사회 여가, 문화활동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매우 만족함	3.55	3.55	4.64	3.49	1.25
만족함	44.14	44.38	47.57	17.14	18.81
그저 그렇다	32.42	32.37	31.06	37.96	32.42
만족하지 않음	17.59	17.4	15.63	38.26	42.90
전혀 만족하지 않음	2.31	2.30	1.10	3.15	4.63
계(명)	100.0(10,083)	100.0(9,991)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표 4-3-32>는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임.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60.2%였음. 일하는 노인은 68.9%가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폐지수집 노인의 28.6%만이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22.6%에 그침

<표 4-3-32>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노인 전체	일반 노인 (폐지수집 제외)	일하는 노인 (폐지수집 제외)	폐지수집 노인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매우 만족함	4.47	4.50	5.71	1.68	1.25
만족함	55.77	56.04	63.23	26.87	21.35
그저 그렇다	28.07	27.87	24.12	49.46	50.35
만족하지 않음	10.12	10.01	6.41	21.99	27.06
전혀 만족하지 않음	1.57	1.58	0.53	0.00	0.00
계(명)	100.0(10,083)	100.0(9,991)	100.0(3,028)	100.0(92)	100.0(63)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제4절 폐지수집 노인 심층분석

### 1. 폐지수집 위험 요인 분석

- 여기서는 폐지수집 혹은 생계형 폐지수집을 종속변수로 하여 노인들의 어떤 특성이 폐지수집을 할 가능성에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확인하였음. 사례 수가 적고, 변수간 내생성(endogeneity)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표 4-4-1>은 선형확률모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각 계수는 각 변수의 1개 단위 변화에 따른 폐지수집 노인 혹은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에 속할 확률을 의미함
-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 기초보장수급, 학력, 거주지 유형이었음. 연령이 1세 많아지면 폐지수집을 할 확률이 0.42%p 높은 것으로 확인됨(0.0042\*\*\*,  $\pm 0.001$ ). 기초보장 수급자는 비수급자보다 폐지수집을 할 확률이 25.21%p 높았음(0.2521\*\*\*,  $\pm 0.0613$ ). 고등학교 학력이 있는 노인은 무학인 경우보다 폐지수집을 할 확률이 3.97%p 낮았으며(-0.0397\*\*\*,  $\pm 0.0114$ ), 대학 이상 고학력 노인은 무학인 노인보다 폐지수집 확률이 4.47%p 낮았음(-0.0447\*\*,  $\pm 0.0166$ ).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읍면부 거주 노인보다 폐지수집을 할 확률이 4.92%p 높았음(0.0492\*\*\*,  $\pm 0.0070$ )

### 2. 폐지수집과 건강, 우울, 안전, 삶의 만족도 관계

- 여기서는 폐지수집을 하는 노인과 하지 않는 노인간에 건강, 우울, 안전,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폐지수집 혹은 생계형 폐지수집 여부를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건강, 우울, 안전, 삶의 만족도 변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함.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선형확률모형 혹은 일반화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함

#### 1) 폐지수집과 건강, 우울의 관계

- <표 4-4-2>는 폐지수집과 건강, 우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임. 건강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 좋음’ 혹은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하면 건강하다고 설정함(건강함=1, 불건강=0). 우울은 우울증이 의심에 해당할 확률을 분석함(우울증 의심=1, 우울증상 8개 미만=0)

&lt;표 4-4-1&gt; 폐지수집 위험 요인 분석(선형확률모형)

변수 (기준변수)	폐지수집		생계형 폐지수집	
	전체 노인	일하는 노인	전체 노인	일하는 노인
연령(세)	0.0004 (0.0002)	0.0042*** (0.0010)	0.0002# (0.0002)	0.0026** (0.0009)
여성(남성)	-0.0057* (0.0025)	-0.0075 (0.0074)	-0.0039 (0.0023)	-0.0058 (0.0069)
기초보장수급(비수급)	0.0206** (0.0078)	0.2521*** (0.0613)	0.0127* (0.0064)	0.1642** (0.0551)
초졸(무학)	-0.0033 (0.0035)	-0.0066 (0.0107)	-0.0040 (0.0030)	-0.0108 (0.0096)
중학교	-0.0077# (0.0041)	-0.0180 (0.0122)	-0.0073* (0.0036)	-0.0194 (0.0112)
고등학교	-0.0148*** (0.0035)	-0.0397*** (0.0114)	-0.0129*** (0.0030)	-0.0371*** (0.0098)
대학 이상	-0.0162*** (0.0042)	-0.0447** (0.0166)	-0.0144*** (0.0031)	-0.0441*** (0.0108)
유배우자(무배우자)	0.0056 (0.0035)	0.0082 (0.0139)	0.0059* (0.0028)	0.0152 (0.0107)
독거(독거아님)	0.0053 (0.0037)	0.0120 (0.0151)	0.0067* (0.0029)	0.0221# (0.0120)
동부(읍면부)	0.0119*** (0.0021)	0.0492*** (0.0070)	0.0079*** (0.0018)	0.0329*** (0.0062)
_Cons	-0.0244 (0.0164)	-0.2932*** (0.0752)	-0.0137 (0.0149)	-0.1862** (0.0688)
F-test	4.076***	5.876***	5.038***	4.666***
R <sup>2</sup>	0.011	0.107	0.008	0.072
사례 수	10,083	3,120	10,083	3,120

주: 괄호안은 Roberst S.E. 임. \*\*\* p<.001, \*\* p<.01, \* p<.05, #<.10

&lt;표 4-4-2&gt; 폐지수집과 건강, 우울의 관계(선형확률모형)

변수 (기준변수)	건강		우울	
	폐지수집	생계형 폐지수집	폐지수집	생계형 폐지수집
폐지수집	-0.0815 (0.0553)		0.1605** (0.0576)	
생계형 폐지수집		-0.0902 (0.0633)		0.1850* (0.0721)
연령(세)	-0.1036*** (0.0224)	-0.1036*** (0.0224)	0.0131 (0.0148)	0.0129 (0.0148)
여성(남성)	-0.0094*** (0.0019)	-0.0095*** (0.0019)	0.0014 (0.0013)	0.0016 (0.0013)
기초보장수급(비수급)	0.0712** (0.0255)	0.0708** (0.0255)	-0.0717*** (0.0202)	-0.0708*** (0.0203)
초졸(무학)	0.1384*** (0.0325)	0.1381*** (0.0325)	-0.1328*** (0.0213)	-0.1321*** (0.0213)
중학교	0.1856*** (0.0346)	0.1855*** (0.0346)	-0.1151*** (0.0227)	-0.1146*** (0.0228)
고등학교	0.2538*** (0.0509)	0.2535*** (0.0510)	-0.1275*** (0.0305)	-0.1265*** (0.0305)
대학 이상	0.0584 (0.0373)	0.0591 (0.0373)	-0.0605* (0.0279)	-0.0620* (0.0277)
유배우자(무배우자)	0.0804* (0.0391)	0.0815* (0.0392)	(0.0004) (0.0305)	(0.0025) (0.0304)
독거(독거아님)	-0.1864*** (0.0555)	-0.1921*** (0.0540)	0.1110 (0.0587)	0.1211* (0.0589)
동부(읍면부)	0.0012 (0.0198)	0.0001 (0.0197)	0.0069 (0.0125)	0.0088 (0.0125)
_Cons	1.0594*** (0.1514)	1.0665*** (0.1513)	0.1194 (0.1092)	0.1068 (0.1090)
F-test	20.430***	20.171***	11.165***	11.148***
R <sup>2</sup>	0.070	0.070	0.060	0.060
사례 수	3,120	3,120	3,120	3,120

주: 괄호안은 Robust S.E. 임. \*\*\* p<.001, \*\* p<.01, \* p<.05, #<.10

- 폐지수집과 건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폐지수집과 건강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폐지수집과 건강의 계수의 방향은 (-)로 부적 관계가 있음을 유추하게 해줌
- 폐지수집과 우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폐지수집과 우울의 관계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폐지수집 노인은 폐지수집을 하지 않는 일하는 노인보다 우울증 의심에 속할 확률이 16.1%p 높았음(0.1605\*\*,  $\pm 0.0576$ ).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나머지 일하는 노인보다 우울증 의심에 속할 확률이 18.5%p 높았음(0.1850\*,  $\pm 0.0721$ )

## 2) 폐지수집과 안전, 삶의 만족도 관계

- <표 4-4-3>은 폐지수집과 안전,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한 결과임. 안전은 낙상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선형확률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4개 영역(건강, 경제수준, 여가 문화활동, 친구와 지역사회) 총점을 종속변수로 한 일반화회귀모형을 적용해 분석함
- 폐지수집과 낙상사고 여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의 사례 수가 적으므로 이에 관한 결과는 잠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폐지수집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폐지수집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폐지수집 노인은 폐지수집을 하지 않는 일하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1.72점 낮았음(-1.7181\*\*\*,  $\pm 0.2685$ ).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은 나머지 일하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1.93점 낮았음(-1.9376\*\*\*,  $\pm 0.3051$ )

&lt;표 4-4-3&gt; 폐지수집과 낙상사고, 삶의 만족도의 관계

변수 (기준변수)	낙상사고 여부(선형확률모형)		4개 영역 삶의 만족도 점수 (일반화회귀모형)	
	폐지수집	생계형 폐지수집	폐지수집	생계형 폐지수집
폐지수집	0.0488 (0.0548)		-1.7181*** (0.2685)	
생계형 폐지수집		0.0314 (0.0678)		-1.9376*** (0.3051)
연령(세)	0.0509*** (0.0148)	0.0507*** (0.0148)	-0.3816*** (0.1067)	-0.3799*** (0.1067)
여성(남성)	0.0037** (0.0014)	0.0038** (0.0014)	-0.0237** (0.0088)	-0.0258** (0.0087)
기초보장수급(비수급)	-0.0082 (0.0198)	-0.0082 (0.0198)	0.4441*** (0.1225)	0.4345*** (0.1228)
초졸(무학)	-0.0582** (0.0219)	-0.0585** (0.0219)	1.0299*** (0.1493)	1.0232*** (0.1495)
중학교	-0.0362 (0.0246)	-0.0370 (0.0245)	1.1072*** (0.1630)	1.1036*** (0.1638)
고등학교	-0.0249 (0.0343)	-0.0257 (0.0343)	1.7263*** (0.2419)	1.7176*** (0.2428)
대학 이상	-0.0183 (0.0267)	-0.0184 (0.0267)	0.1742 (0.1733)	0.1896 (0.1736)
유배우자(무배우자)	0.0202 (0.0296)	0.0201 (0.0296)	0.1022 (0.1828)	0.1244 (0.1833)
독거(독거아님)	0.0519 (0.0549)	0.0591 (0.0562)	-1.0268*** (0.3069)	-1.1419*** (0.3021)
동부(읍면부)	-0.0021 (0.0130)	-0.0007 (0.0129)	-0.2772** (0.0908)	-0.2981*** (0.0904)
_Cons	-0.1334 (0.1100)	-0.1418 (0.1090)	10.5660*** (0.7140)	10.7090*** (0.7124)
F-test	6.831***	6.842***	30.982***	30.299***
R <sup>2</sup>	0.028	0.028	0.106	0.105
사례 수	3,120	3,120	3,120	3,120

주: 괄호안은 Robust S.E. 임. \*\*\* p<.001, \*\* p<.01, \* p<.05, #<.10

## 제 5 장

# 결 론

### 제1절 결과 요약

-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를 추정된 결과, 2017년 기준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기준 약 6만6천명이었음
  - \* 폐지 판매처인 고물상 관련 공식 통계: 2006년 환경부 고물상수 7,282개, 고물상 관련 단체 7만 여개로 추정. 2004년 국세청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현황은 전국에서 15,800명이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발표함. 2017년 서울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동사무소 직원이 고물상 방문조사)에서 폐지수집 노인은 서울시 노인인구의 0.2%였음(강남구 제외)
-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폐지수집 노인은 전체 노인보다 고령 노인이 많고 여성 비중은 낮음. 교육수준은 저학력자, 가구유형은 독거가 많았고, 읍면지역보다 동지역, 대도시 거주 비중이 높았음. 이러한 특성은 생계를 이유로 폐지수집을 한다고 응답한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경제수준의 경우,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보장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포함)는 26%였음. 폐지 수집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평균 20여만원, 시간당 평균 2천2백원이었음
- 한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은 71.7%였는데, 이는 일하는 노인(51%)보다 현저히 높았음. 폐지수집 노인 중 33.7%가 우울증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됨. 본인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는데도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폐지수집 노인은 29.1%였음. 그중 83.3%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함. 폐지수집 노인 중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은 21.8%였음

## 제2절 정책제언

### 1.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지원은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져야 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폐지수집 노인은 생계급여 수급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 폐지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생계급여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의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비수급자이면서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의 경우 건강, 가구소득,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소득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폐지수집을 하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등을 통해 우선 보호하고, 기초보장제도 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할 것임
- 폐지수집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쁜 것으로 확인됨. 지역사회를 통한 돌봄과 상담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지역 보건지소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임.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지 못 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음.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폐지수집 노인은 공용쓰레기장이 없는 지역에서 활동함. 많은 경우 우범지역,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골목길에서 폐지수집이 이루어지므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지수집 노인에게 안전 조끼, 최신식 리어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폐지수집 노인이 처한 근로 환경을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임. 폐지수집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노인들이 폐지수집 이외에 다른 소득원을 찾도록 연계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함.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지수집을 계속하려는 노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폐지수집 노인을 독거노인처럼 지역사회의 우선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밀착,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sup>10)</sup>

10) 본 연구에서 폐지수집 노인은 가족과 함께 지내고, 거동할 수 있어서 외부활동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독거노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취약집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2.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방안

- 폐지수집 노인 중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는 노인이 대부분이었음. 건강하면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을 안전하고 안정적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임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가능한 폐지수집 노인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표 5-2-1>과 같음. 건강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폐지수집 노인은 약 5천1백여 명이었음. 지자체, 수행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우선 참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도 가능할 것임

<표 5-2-1>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가능 폐지수집 노인 규모 추정

(단위: %, 명)

구 분	폐지수집 노인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폐지수집 노인	건강하고,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폐지수집 노인
%	0.90	0.19%	0.07%
명	66,202명	13,977명	5,149명

주: 전체 응답자 중 대리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2017년 65세 이상 주민등록 노인 인구는 7,356,106명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제3절 한계 및 후속 과제

- 본 연구는 그간 알려지지 않은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폐지수집 노인의 취약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관련해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음
- 첫째, 분석 자료가 폐지수집노인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한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이 경우, 취약집단은 조사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조사대상에 선정되어도 설문에 응하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폐지수집 노인의 취약성은 과소추정된 것일 수 있음

- 둘째, 사례 수의 적절성임. 본 연구에서 폐지수집 노인은 92명임. 폐지수집 노인을 모집단으로 할 경우,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사례 수가 모집단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확인할 수 없음. 회귀분석을 할 때 일반적으로 관심 변수값을 반영하는데 적합한 사례 수는 전체 사례의 5%로 알려져 있는데,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폐지수집 노인 비중은 2.9%로 제한적이나마 이 기준에 부합함.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폐지수집 노인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정교한 인과관계 추정 등은 다소 어려울 수 있음
- 한편,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수행한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결과와 노인실태조사 폐지수집 노인 중 서울시 거주자의 주요 특성은 대동소이했음(<표 5-3-1>)

<표 5-3-1> ‘서울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와 ‘2017 노인실태조사’ 분석결과 비교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2017 노인실태조사 서울시 거주 폐지수집 노인 분석결과
여성(%)	67.0%	71.6%
76세이상 노인(%)	74.5%	65.4%
기초연금 수급자(%)	87.7%	88.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포함, %)	35.0%	36.8%
독거노인	50.0%	48.6%
폐지수집 이유(생계, 용돈, %)	82.3%	95.2%
평균수입 10만원 미만(%)	50.0%	29.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중 서울시 거주자로 한정해 계산  
서울시, (2018). 우리시대 新 복지사각지대'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보도자료

- 본 연구는 폐지수집 노인이 일반 노인에 비해 근로, 소득, 안전, 건강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정보가 될 수 있음

- 후속연구에서는 폐지수집 노인 중에서도 열악한 노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거나, 사회안전망 없이 과노동 등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폐지수집 노인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학술적 의미가 아니라 정책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음. 복지 사각지대의 폐지수집 노인들을 제도에 편입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요구됨



## 참 고 문 헌

- 강재성(2016). “재활용인”들의 시장경제적 자원순환: 고물상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배명선·김정자·최송식(2016). 폐지수집 노인의 생활실태와 노인복지정책적 대안. 한국노인복지학. 71(1): 111-135.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매뉴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시(2018). 우리시대 新 복지사각지대’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보도자료
- 소준철(2018). 폐지 수집 어르신 보호대책 마련 긴급토론회 발제문. (원혜영·김영진 의원 공동주최).
- 소준철·서종건(2015).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 서울연구원.
- 이성은(2017). 폐지수집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4(3): 360-367.
- 정경희 외(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언론기사]

- 서울경제. 2015.8.26. “그 많던 폐지줍는 노인은 어디로 갔을까?”,  
<https://www.sedaily.com/NewsView/1HNAP0BVFC>
- 한국경제. 2018.4.4. “폐비닐 이어 폐지도 대란 조짐... 중국 수출 막히며 가격 30% 곤두박질”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451801>



## ▣ 저자소개

책임연구원: 변금선(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연구지원: 윤기연(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송명호(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폐지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

발 행 | 2018년 11월

발 행 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소 | 10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중산동 1701)

전화번호 | 031) 8035-7500 Fax. 031) 819-0790

인 쇄 처 | 월드프린테크 02) 712-3456